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응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티드 플레이저 네이션과
함께 아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 (703)281-9660 koreadaily.com

중앙일보

①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465호

Monday, January 12 2026 A

‘이민국 총격 사망’ 반발 확산…시위 격화 조짐

미네소타주 미니애플리스에서 30대 여성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위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론 진화를 위해 직접 백악관 브리핑을 진행한 JD 밴스 부통령은 “사망한 여성은 광범위한 좌익 네트워크의 일원이었다”고 단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소속 단체나 배후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8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니애플리스 도시 외곽에 있는 연방 청사 앞에는 백인 여성 브리핑을 진행한 JD 밴스 부통령은 “사망한 여성은 광범위한 좌익 네트워크의 일원이었다”고 단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소속 단체나 배후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시위대는 ICE를 향해 “일을 당장 중

단하라”, “지금 당장 정의를”이라는 등을 구호를 외쳤고, 일부에선 “나치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과격한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는 시위 대를 향해 후추 스프레이와 최루 가스를 발사하며 해산을 시도했다. 시위대를 건물 건너편으로 완전히 밀어낸 뒤에도 100여명의 순찰대가 방독면 등의 장비를 착용한 채 시위대의 청사 진입을 막았다.

AP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시위는 뉴욕과 디트로이트, 시카고,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노스캐롤라이나,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전날 오전 미니애플리스의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석에 탄 채 도로를 막고 있던 여성은 차 문을 열라는 ICE 요원들의 요구에 불응하고 차를 몰고 이동하였다 한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이 사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과격 폭



8일 뉴욕 맨해튼에서 미니애플리스의 ICE 총격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 [로이터=연합뉴스]

도중 한 명이 요원들을 차로 쳐 살해하려 해, 한 ICE 요원이 방어 사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이 공유한 현장 영상에 따르면 이 여성은 피격 직전 요원을 차로 친 정황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당국은 당초 이번 사건을 연방수사국(FBI)과 미네소타주 범죄수사국(BCA)의 공동 수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BCA는 이날 “FBI가 증거물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수사에서 손을 뗐고, 미네소타 법이

요구하는 수사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CNN은 현장에서 촬영된 4개의 영상을 분석해 “당국의 발표와 촬영된 영상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발견된다”고 보도했다.

CNN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사망한 여성 굿의 차량은 대차 전 약 3분간 도로를 가로질러 정차해 있었고, 2분 뒤 요원들이 차량으로 접근해 차를 명령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후 요원 한 명이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접근하자 굿은 차량을 후진한 뒤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 전진을 시도했고, 차량 앞쪽에 있던 다른 요원이 총을 발사했다. CNN은 총을 쏜 요원의 위치에 대해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JD 밴스 부통령이 직접 백악관 브리핑을 자처하고 진화에 나섰다.

강태화 기자

▶ 2면 ‘이민국 총격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2000불 관세 배당금’ 연말에 준다

연방대법원 판결 ‘변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과 관련한 2000달러 ‘배당금(dividend)’ 지급 시점을 올해 말로 거론해 관심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면서 관세 수입을 활용한 현금 지급 구상을 재확인하고, 지급 시점에 대해 “연말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실행 여부는 연방대법원의 관세 합법성 판단에

달려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기도 하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위원회(II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놓고 판결을 앞두고 있는 데, 선고 일은 14일로 예정돼 있다.

연방 재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5 회계연도(2024년10월~2025년9월) 기준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약 1950억 달러에 이르렀고,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추가로 620억 달러가 더 견했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가 수천억달러, 나아가 수조달러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관세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주고 국가 부채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관세 배당금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백악관은 원론적인 입장장을 유지하며 배당금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달리, 최근 미국의 무역적자는 크게 줄었고, 지난해 10월 무역적자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성한 기자

IRS, 26일부터 세금 신고 접수



이 없도록 국세청 홈페이지(IRS.gov)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조정 내용은 ‘부부 공동 신고, 3만1500달러에서 3만2200달러’로, ‘독신, 1만6100달러’, 그리고 세대주는 2만4150달러이다.

김성한 기자

파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액을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 금 고가 매입
손금 애기 블란지 컬피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밍
구합니다.
410-988-5523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Connie A. Yoon
법무이사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 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퍼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www.davidmarksllc.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Martindale-Hubbell

Peer Rated for Strong
Ethical Standards

2019



연방요원이 또 쌌다… 공권력 남용 비난 확산

포틀랜드서 2명에게 발포
DHS 측은 '정당방위' 고수
ICE 총격사건 곳곳서 시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연방 요원이 차량 검문 과정에서 민간인 2명을 총으로 쏜 사건이 발생했다. 연방 단속을 둘러싼 긴장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18분쯤 국경순찰대(BP) 요원들은 포틀랜드에서 '표적 차량 검문'을 진행하던 중 운전자가 요원을 차량으로 위협하려 했다고 판단해 발포했다. 당국은 검문 대상이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이며 범죄 조직 연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총격으로 2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사건 경위와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한번 일고 있다.

이 사건은 하루 전인 7일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권자 여성 브네 니콜 끽(37)이 숨진 사건과 맞물리며, 연방 요원의 무력 사용과 이민 단속 방식



연방요원의 총격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8일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시위대와 연방 요원의 대치 상황까지 벌어졌다.

[로이터] 강한길 기자



오른쪽 사진은 LA 다운타운 연방정부 빌딩 앞 시위 모습.

에 대한 반발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LA를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항의 시위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현장에서 불과 약 1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해, 권력 기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분노를 재점화하며 규탄 움직임이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8일 오전 9시 LA 다운타운 연방청사 앞에는 시민·종교 단체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집결해 세 아이의 어머니인

르네 니콜 끽의 사망 사건을 규탄했다.

시위에 참여한 하이라 세베로(28)는 “나도 싱글맘인데 숨진 곳 역시 아이를 두고 떠났다”며 “이는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커뮤니티 전체의 상처”라고 성토했다.

일본계 미국인 트레이시 이마무라는 “공개된 영상은 이민자들이 느끼는 공포를 그대로 보여주며, 이 두려움이 아시아계 커뮤니티로도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출신 메리 벤더리(35)씨 또한 “이런 충돌이 전국 어디

서든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LA를 비롯한 샌디에이고, 미니애폴리스, 필라델피아,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에서도 시위가 진행됐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이날 오후 6시(동부 시간) 시청 앞 노스 에이프런 광장에서 연대 집회가 열렸다. 사건 발생지인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총격 요원은 미니애폴리스 거주자로, ICE에서 10년간

근무한 조너선 E. 로스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연방·주 의원들은 ICE의 책임을 지적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DHS는 요원의 발포가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담당 총괄 책임자(일명 국경 차관)를 맡고 있는 톰 호먼은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장 상황과 바디캠 영상 등을 포함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HS는 총격 사건 다음 날인 8일 “지난해 대비 ICE 요원 대상 폭행은 1300% 이상, 차량을 이용한 공격은 3200%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이를 ‘피난처 도시 정치인의 선동’ 탓으로 돌리며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이민 단속 강화를 예고한 직후 발생했다. LA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도 단속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유사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한길 기자

» 1면 '이민국 총격 사망'에서 이어집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번 사건은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며 “해당 여성은 광범위한 좌의 네트워크의 일원”이라며 “법 집행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좌의 급진주의자 집단이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선출된 임무인 이민 법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국내 테러 기법까지 동원하며 끊임없이 활동해왔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굿에 대해선 “어떻게 짧은 엄마가 차를 몰고 나와 요원들 앞을 차를 돌진시키겠다고 결심하겠느냐”며 “이지경에 이르려면 세뇌를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의미에선 좌파 이념의 희생자”라고 했다.

기자들이 ‘좌의 네트워크의 배후’에 대해 질문하자 밴스 부통령은 잠시 머



미네소타주 ICE 요원 총격사건 현장의 폴리스라인과 차량

[연합뉴스]

듯거리더니 “우리가 밝혀내야 할 부분 중 하나”라며 “그러나 법 집행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선동하려는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솔직히 일부 언론도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선 “법무부가 수사할 예정이고, 국토안보부도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하다. 한 여성의 합법적 법 집행을 방해했고, 차량을 집행관을 향해 돌진하는 가속 폐달을 밟았다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과거 미전역에서 격렬한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불과 1마일(1.6km) 떨어져 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망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다만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번 사건에 분노를 표하면서도 시위대에 평화를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역의 소요 상황을 빌미로 역공을 펼 수 있다는 취지로 “그들은 쇼를 원하고, 미끼를 물지 말라”며 특히 “그들이 연방군을 이곳에 투입하도록, 그들이 반란 진압법을 발동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강태화 기자

워싱턴 날씨 (°F)
1월 12일(월) 47-26
13일(화) 51-41 16일(금) 33-25
14일(수) 54-33 17일(토) 43-26
15일(목) 36-20 18일(일) 32-18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3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3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12001 Rt 50, 2nd Fl, Fairfax, VA 22033 (703) 449-7629



SALE 특집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 3½

RENT 특집
기차역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 2½

현스 홈케어 서비스

HYUNS HOME CARE SERVICE

Always With You!



어르신 상담 Senior Consulting Service

- 맞춤형 개인 간병 서비스 (치매 상담제공 - CDP)
- Medicaid 신청 및 각종 정부 지원 안내 (푸드 스탬프, 교통 지원 등)
- Senior Living 안내 (시니어 아파트, 그룹홈 등)
- 병원 및 약국 업무 대행 서비스
- 의료기기 및 개인용품 주문 서비스



30년 삼성 HR 경험,
이제는 홈케어 서비스와 함께 합니다.

“사랑을 아는 경험, 사람을 돌보는 마음 –
현스 홈케어”

간병사 모집 Caregiver Recruitment

- 월 2회 간병사 교육 및 Certification 발급
- CNA 교육 지원 (시험 응시료 1회 지원, 취득 시 추가 혜택 제공)
- 주급 지급 (매주 금요일)
- 안정적인 근무 배정 및 경력 관리 지원
- 친절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



2834 Hill Rd., Vienna, VA 22182

703.507.2492 Mr. 배 571.334.3963 Mr. 윤

Hyunshomecare@gmail.com
admin@hyunshcs.com
www.hyunshcs.com



구글 '비즈니스 평가 어워즈' 톱10에 '윤이헤어' 선정

메릴랜드 엘리콧시티 지역
한인 업체로 유일한 '수상'

한인 이윤이 씨가 개업해 운영하고 있는 '윤이헤어(Yuni Hair Studio)'가 구글(Google)의 메릴랜드주 엘리콧시티 지역의 비즈니스 평가에 톱10에 들어 화제가 되고 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둔 구글은 구글 검색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와 유튜브 사업,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메일, 크롬, 지도, 어스, 포토 등과

함께 '전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체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산업의 가장 큰 기업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센터, 통신 네트워크와 함께 매일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전미주 지역별 비즈니스 평가를 통해 톱10 수상자를 선정 발표하고 있는 구글은 지난 6일 '2025년 엘리콧시티 어워즈 수상업체'로 선정된 상장을 보낸 것을 이윤이 원장이 받았습니다.



상장에서 구글은 이번 선정은 공개된 리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만족도, 브랜드 평판, 서비스 우수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즈니스 평가 점수는 고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종합한 완전한 성과 지표이며, 이 상은 유니헤어가 지역 경쟁업체들과 비교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1999년 베지니아주 스프링필드에서 개업한 윤이헤어는 2016년 메릴랜드주 엘리콧시티로 이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윤이 원장은 구글 어워즈 수상에 대해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2026년 범오년 새해 큰 선물을 받아 기쁘기 한량없다"면서, "이 상은 단순한 상이 아니라 앞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아름다움과 만족을 선사하는 동시에 커뮤니티 발전에도 기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책임감이 한층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상에는 주류사회의 데니스스토랑, 애니타임 피트니스, BP 개스스테이션 등 쟁쟁한 기업이 톱10에 들었고, 한인사회에서는 유일하게 유니헤어가 뽑혀 큰 경사가 됐다.

김성한 기자

"조용한 혁신으로 미국 시장 홀렸다"

쿠쿠, 새해맞이 '내솥' 무료 증정 이벤트

한국서 검증된 베스트셀러, 미국 출시 기념 프로모션

트윈프레서·사일런트 압력기술 집약된 '전용 모델'

논스틱과 스테인리스 이너팟 호환으로 활용도 극대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외국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밥솥 브랜드 쿠쿠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미국 소비자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세계적인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Euromonitor International)'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밥솥 브랜드 '쿠쿠 아

메리카'는 '조용한 혁신'으로 한국을 넘어 미국 시장에서도 인기몰이 중인 프리미엄 밥솥 프레스티지 사일런스 프로(Prestige Silence Pro)'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99.99 상당의 '프리미엄 풀 스테인리스 이너팟'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오는 1월 9일부터 1월 19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인공인 '프레스티지

사일런스 프로(CRP-OHTR0609FW, CRP-PHTR0609FS)'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압도적인 밥맛으로 이미 한국 시장에서 검증을 마친 베스트셀러다. 특히 미국 시장에 출시된 모델은 현지 소비자의 다양한 식습관을 고려해 업그레이드된 '미국 전용 특별판(US Special Edition)'이다.

쿠쿠 아메리카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스테인리스 이너팟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쿠쿠의 기술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스테인리스 내솥은 코팅 걱정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구수한 누룽지를 맛있게 만들어낸다.

쿠쿠 아메리카 관계자는 "이번 프로



모션은 단순한 사은품 증정을 넘어, 한국의 독보적인 밥솥 기술력을 미국 시장에서 온전히 경험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다"며, "논스틱의 편리함과 스테인리스의 건강함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

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스테인리스 이너팟 무료 증정 이벤트는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쿠쿠 아메리카 웹사이트 <https://cuckooameric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알벗 기자

정부 사칭 "토지 이용 신청자 대상" 사기

페어팩스, 신종사기 경고
이메일 통해 긴급 돈 요구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는 도시계획개발부를 사칭해, 토지 이용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이고 있

다고 9일 경고했다.

최근 도시계획 및 토지 이용 시스템(PLUS)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은 도시계획개발부를 사칭한 사기 성 이메일을 받고 있으며, 주 내용은 결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에는 실제 신청 번호나 예정된 청문회가 언급될 수도 있는데, 송금이나 기타 형태의 결제를 요구하는 가짜 청구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한 사기성 이메일의 제목은 '즉각적인 조이 필요-SP-2025-PR-00077에 대한 최종 승인 수수료'

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페어팩스 카운티는 "절대로 스팸 메일, 계좌 이체 또는 공식 PLUS 시스템 외부에서 발송된 청구서를 통해 결제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공식 수수료 납부는 ACH/eCheck, 신용카드 또는 극히 드문 경우에 한해 PLUS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그리고 밝히며, 만약 스팸 이메일을 받았다면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 파일을 열거나, 결제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메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PLUS 요금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신고하려면 plussupport@fairfaxcounty.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703-324-2222로 전화하면 된다. 김성한 기자



서울대학교 국제하계강좌

SNU ISP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SUMMER PROGRAM

2026 여름방학,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함께 우수한 서울대 교수진 및 외국대학 해외초빙 교수진의 강의를 듣고 학점 취득을 비롯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최고의 기회

기간 2026. 6. 22(월) ~ 7. 25(토) (5주)

대상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학에 합격한 예비 대학생

교과목 인문, 사회, 경영, 경제, 공학, 한국학(한류 포함), 한국어 교육 등 70여개 과목

강의언어 영어(과정 완료 시 수료증 및 영문 성적표 발급)

장학혜택 (증복불가)
• 조기등록(수업료 20% 할인/4월 5일 전),
•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 전공자(수업료 20% 할인)
• 교환학생 협정 체결 대학(수업료 10% 할인)
• 재등록자, 동문자녀, 형제자매 등반 등록자(수업료 20% 할인)
• 미주동창회 장학금(SNUAA-USA Scholarship)

2026 하계강좌 세부 일정

4월 5일 조기등록 마감

일정 내 용

5월 8일 지원신청 마감

5월 13일 비용납부 마감

6월 24일 입학식 <기숙사 체크인(6월 22~23일)>

6월 24~25일 오리엔테이션·환영이벤트

7월 22일 수업 종료 및 시험

7월 24일 졸업식 <기숙사 체크아웃(7월 25일)>

2026 하계강좌 비용

구 분	금액 (₩)	금액 (\$)	비 고
필수	신청료 200,000	180 → 140	—
	1,200,000	1,080 → 830	1 course (2 credits)
	1,800,000	1,620 → 1,240	1 course (3 credits)
수업료	2,400,000	2,160 → 1,650	2 courses (4 credits)
	2,790,000	2,511 → 1,910	2 courses (5 credits)
	3,348,000	3,013 → 2,290	2~3 courses (up to 9 credits)
선택	현장체험 300,000	260 → 210	—
	기숙사 1,100,000	800 → 760	Dormitory Lodging (No Meal)

*USD 금액은 참고용으로 비용 납부는 원화금액기준으로 진행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 SNU ISP website

<https://summer.snu.ac.kr>

문의

이메일 : summer@snu.ac.kr

전화: +82-2-880-4449

UC계열 가주 출신 재학생 사상 최다

2025년 가을학기

10개 캠퍼스 23만1338명
학부생은 전체 85% 차지
한인 등 아시아계가 1위

지난해 가을학기 UC계열에서 캘리포니아주 출신 등록생이 사상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 출신 유학생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UC계열 웹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가을학기 학부 및 대학원 등록생은 총 30만1093명으로, 전년도 29만9407명보다 1686명(0.6%) 늘었다. 가주 출신 등록생도 사상 최다인 23만1338명(전체의 76.8%)으로, 전년도 23

만277명보다 1061명 증가했다.

UC계열은 LA, 버클리 등 총 10개 대학으로 구성돼 있다. 2025년 가을학기 학부 및 대학원 등록생의 인종별 구성에서는 아시아계가 33.5%(학부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라틴계 24%(학부 27%), 백인 20%(학부 19%), 유학생 13%(학부 9%), 흑인 4.9%(학부 4.8%) 순으로 나타났다. 인종별 구성비는 전년도와 유사했다.

이와 관련해 LA타임스는 가주가 1996년 '주민발의안 209'를 통해 공립 학교에서 인종을 고려한 입학 사정을 금지한 이후, 가주 및 전국에서 학업 우수자 우대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UC계열이 인종을 배려한 정책을 불법 적으로 시행했다며 지난해 12억 달러

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UC계열에 등록한 가주 출신 학부생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00~4000명 가까이 꾸준히 늘며 전체 학부생의 82~85%를 차지하고 있다.

학부생 수는 2021년 18만9374명, 2022년 19만426명, 2023년 19만4808명, 2024년 19만8736명, 2025년 20만532명을 기록했다. 반면 가주 출신 대학원생은 2021년 3만3041명에서 2025년 3만80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가주 출신 학부생 등록 증가와 관련해 UC계열 제임스 밀리켄 총괄총장은 "UC에 대한 투자는 우리 주 출신 학생들의 미래와 가주 노동 환경, 경제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며 "학문적 우수성과 접근성, 혁신이 UC를 세계 최고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

했다. UC계열 측은 가주 정부가 가주 출신 학생 등록 확대를 위해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학생비자(F-1) 발급 심사가 강화됐지만, UC계열의 유학생 감소 폭은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UC계열 유학생 수는 2024년 가을학기 3만4997명에서 2025년 가을학기 3만4498명으로 1.4% 감소하는데 그쳤다. 중국과 한국 출신 유학생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인도 출신 유학생만 491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가을학기 전체 등록생의 11.5%를 차지한 유학생의 출신 국가는 중국(1만7964명), 인도(3893명), 한국(1856명), 대만(1295명), 캐나다(1054

명), 일본(582명)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UC 총장실에 따르면 2025년 가을학기 UC계열 가주 출신 한인 신입생 및 편입생은 3851명이다. UC계열 한인 학생은 아시아계 전체 학생의 약 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가을학기 UCLA 학부 및 대학원 등록생은 4만7435명(학부생 3만3535명)으로, 전년도 4만7335명(학부생 3만3475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UCLA 학부생 중 가주 출신 비율은 2년 연속 80%대를 유지했다. 전체 등록생의 인종별 구성은 아시아계 31%, 백인 24%, 라틴계 21%, 유학생 13%, 흑인 7% 순이었다. 유학생 출신 국가는 중국(2214명), 인도(416명), 한국(331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프리스쿨 여교사 아동 성추행 피소

"부적절한 접촉·성적 학대" 주장 '조치 미흡' 이유로 원장도 포함

LA 한인타운 내 한 프리스쿨 여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동 성추행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이 학부모는 아동 보호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원장 역시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

7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LA 퍼스트 몬테소리 스쿨(LA First Montessori School)'의 여성 교사와 최 모 원장을 상대로 미성년자 성

추행과 관련, 정신적·정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소장에는 지난해 4월 4세인 여아가 수업 시간 중 여성 교사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해당 교사는 '미스 샤론(Ms. Sharon)'이라는 가명으로 명시됐다.

원고 측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학대 의혹을 프리스쿨 측에 알렸음에도 아동 보호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프리스쿨의 원장이 이메일을 보내 피해 아동과 해당 교사가 직접 대

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원고 측은 "이 같은 대응 방식은 추가로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원고 측은 원장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이번 사건을 신고할 경우 법적 대응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프리스쿨의 한 관계자는 8일 본지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윤재·송윤서 기자

"트럼프 간판 싫어서, 캐네디센터 떠납니다"

'트럼프-캐네디 센터'(사진) 개명 이후 55년간 캐네디 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한 위싱턴국립오페라(WNO)단이 결별을 선언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WNO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캐네디 센터와 제휴 계약을 원만하게 조기 종료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NO는 캐네디 센터가 개관한 1971년부터 이곳을 본거지로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왔다. 캐네디 센터 대변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관계 때문에 WNO와 결별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WNO는 캐네디 센터가 사업 모델 변



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WNO는 성명에서 "오페라단은 일반적으로 티켓을 판매해 30~60%의 운영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보조금과 기부금에 의존 한다"며 "공연 계획은 몇 년 전에 세우

는데 그 시점에 이를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싱턴포스트(WP)는 WNO의 설명과 다르게 최근 캐네디 센터가 '트럼프-캐네디 센터'로 개명된 것이 양측 간 계약 해지의 결정적 이유였다고 보도

했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네디 센터 의장으로 자신을 '셀프 임명'한 후 지난달 개명까지 한 게 결별 죄발 했다"고 말했다.

GEICO is now available in our agency.

We're excited to offer our local insurance expertise along with the benefits of GEICO.



Competitive rates and savings



Outstanding claims experience



Easy access to great coverage

Locations are owned and operated by independent contractors/agents of the GEICO companies.



LA한인회, 시니어들에 새해 인사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 관계자들은 지난 7일 코리아타운 양로보건센터를 방문해 신년 인사를 했다. 이날 로버트 안 회장과 임원진은 시니어들에게 세배를 하고 선물도 전달했다. [LA한인회 제공]

"네이버 계정 없으면 입국 못하나요?"

질병청 큐코드 서비스 혼선 '네이버 안내창' 만 부각 불편

한국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2월 선보인 큐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간소화 서비스가 혼선을 빚고 있다. 네이버 계정이 있어야만 검역 신고를 마치고 입국할 수 있는 것처럼 구성돼 있어서다.

개편된 큐코드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하면 '네이버 검역정보 사전입력 바로 가기' 안내 문구가 화면 한가운데 떠 있다. 질병청은 이 안내창을 통하지

않고도 검역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고 해명하지만, 네이버 안내창이 단연 돋보여 다른 입력법은 알아내기 어렵다.

문제는 네이버를 통해 검역신고를 하려면 개인 통장 번호까지 입력해 인증서를 받은 뒤 건강 상태, 한국 체류지 주소, 여권 번호를 내야 한다. 외국어 버전도 똑같다.

최승표 기자

광고·구독 문의
Tel. 703-281-9660
① **위성판 중앙일보**

Call to get a GEICO quote today!

김원기 종합보험

(301) 962-8300
(301) 526-7000(c)
won@wkkinc.com



Get more with
GEICO®

벌써 20여명 출사표…LA시장 선거 ‘혼전’

앤드루 김 변호사 등 한인 2명
현직 배스 vs 다자 구도 형성 중

오는 11월 3일 예정된 LA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현재까지 캐런 배스 현 시장을 포함해 20명을 넘기며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TV 스타부터 변호사, 교육 행정가까지 각계각층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한인 후보 2명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LA시 윤리위원회가 운영하는 2026년 선거 상황판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LA시장 후보는 22명이다.

이번 선거에는 한인 수지 김 후보와 앤드루 김 후보도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로 활동 중인 앤드루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선거에서 낙선한 뒤 재도전에 나섰다.

김 후보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앤드루 김



스펜서 프랫



오스틴 뷔트너



레이 황

“배스 시장 체제 아래에서 한인 사회는 범죄, 노숙자, 경제 악화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며

“그의 암기 내내 도시 전반이 하향세를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인 사회가 LA에서 곁도는 존재가 아니라 지도력과 영향력을 갖춘 커뮤니티로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덧붙였다.

인지도 면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은 유명 TV 스타 스펠서 프랫이

다. 프랫은 지난 7일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열린 팰리세이즈 산불 1주년 집회에서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MTV 리얼리티 시리즈 ‘더 힐스’에 출연한 이후에도 방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지도를 넓혀왔다.

프랫은 산불 대비·대응·복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LA시의 구조적 실패를 출마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LA시 행정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망가져 있으며, 재난 피해 주민보

다 권력을 가진 이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누군가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LA통합교육구(LAUSD) 교육감을 지낸 오스틴 뷔트너 후보 역시 배스 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일찌감치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뷔트너는 최근 LA 산불 대응과 관련해 “배스 시장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를 이끌기보다은 폐가 이뤄지도록 방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 대응을 ‘리더십 실패’로 규정하며, 사전 대

응과 사후 책임 모두에서 시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거 보호 활동가이자 목사인 대만계 레이 황(Rae Huang)도 시장 후보로 출마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황 후보는 주거권 보호 단체 ‘하우징 나우 캘리포니아’ 부국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배스 시장보다 더 진보적인 노선을 내세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 후보는 주택 부담 완화, 대중교통 무료화, 존엄한 노동 환경 조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가운데 지난 2022년 배스 시장에 개 폐한 부동산 재벌 릭 카루소와 린지 호바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등은 여전히 재도전을 고심 중이다. 특히 카루소의 경우 LA시장 선거가 아닌 가주 주지사 선거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경준 기자

이민 유입 줄면 인구도 준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탓에
2030년부터 인구 감소 예상

이민자가 줄면 결국 인구 증가세가 둔화된다.

의회예산국(CBO)은 7일 2026~2056년 인구 전망 보고서에서 전국 인구가 올해 3억4900만명에서 2056년 3억64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월에 분석된 3억7200만명보다 적은 주산치로 인구의 증가 규모가 급감하고 있다는 추세가 반영됐다. CBO는 이 같은 증가세 둔화의 원인으로 현 정부의 이민정책을 꼽았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이민자 유입이 인구 증가의 주요 동력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후 이민 규제를 대폭 강화해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신규 이민을 축소하고 있다.

또, 이민자가 자녀를 더 많이 갖는 경



향이 있는 까닭에 이민자 감소는 출산율과도 무관하지 않다.

CBO는 이와 관련해 “현재 행정부의 행정조치 때문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순이민의 주산치를 줄였다”고 밝혔다.

CBO는 오는 2030년부터 2056년까지 이뤄지는 인구 증가가 전적으로 이민에 의존할 것으로 분석했다.

CBO는 “인구가 2056년에 증가를 멈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민자가 없다면 2030년부터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인구 학자 윌리엄 프레이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이민규제가 나중에 완화되더라도 충격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인구 증가세 둔화와 사회 고령화는 노동자 감소에 따른 경제활력 침체나 사회복지 부담으로도 직결된다.

프레이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 4년간 애들이 줄어든다”며 “노동자 납세의 감소 때문에 인구 고령화에 이미 허덕이는 사회복지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웨이 과속 집중 단속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한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가주교통청(CalSTA)은 차량국(DMV),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등과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과속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 위반 전력과 관계없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6일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특별 교통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CHP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총 9308건의 교통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5458건에 대해 티켓이

발부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2972건(약 54%)이 과속으로 인한 티켓이었다.

CHP 측은 “과속 사례 중 92건은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다 적발된 경우”라며 “100마일 이상 주행은 단순한 범칙금 부과를 넘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같은 기간 주 전역에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379명이 체포됐다. 이 가운데 6건은 사망 등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졌다.

CHP는 “과속, 음주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은 여전히 인명 피해 등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송윤서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경!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0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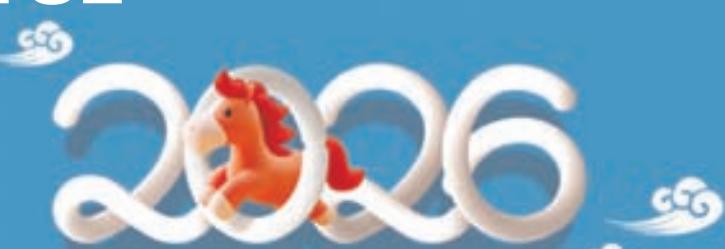
내 척추길이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기능·무이자 할부 가능 (K- 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메가 부동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한 해를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25600개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365개의 소원이 8760개의 기쁨이

보너스 같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없이 알아서 잘되고 스스로 풀어지는 새해는 아등바등

애써야 하는 일이 라도 새해의 시작을 기대합니다.

지난 감사와 추억을 간직하고 반가운 소식같은

2026년 새 시작이 열립니다.

365일, 8760時, 525600分의

2025년이 지나고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메가부동산

703.534.4989 / www.megarealtyusa.com
4600 John Marr Dr. Suite 20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 M&T ● 대장금(미국금) ●

● 휴밀리노래방 ●

● 40 ●

● 300m ●

● 뉴타운 ●

미락초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세로지은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병원에 시신 쌓였다…이란 시위 2000명 이상 사망 가능성”

〈반정부〉



■ 지난 9일(현지시간) 공개된 이란 반정부 시위 도중 불타는 차량의 모습. ■ 10일 이란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 독일 베를린에 모인 군중. ■ 화염에 휩싸인 모스크. ■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9일 진행된 행사에 참석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경제난을 계기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 내 180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계속되며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정부는 경찰·이슬람혁명수비대뿐 아니라 정규군까지 시위 진압에 동원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미국 정부가 대규모 공습을 포함한 군사 개입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노르웨이에 기반한 단체 이란 인권(IHR)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어진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 현재까지 최소 19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해당 단체가 집계한 51명에서 약 4배 뛰어난 수치다. IHR은 9~10일 이를 간 사망자 발생이 집중됐으며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서는 시위에 참여한 희생자 시신 수백 구가 발견됐다는 전언도 있다고 언급했다.

의명을 요구한 시위 참여자는 CNN

에 “군용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며 “병원 내 시신들이 서로 겹쳐 쌓여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또한 CNN은 의료 진을 인용해 “테헤란 내 한 병원에서만 눈에 파편이 박힌 환자가 200~300명에 이른다”고도 전했다. 영국 BBC방송은 이란 내 병원마다 부상자와 사망자가 넘쳐나 심폐소생술을 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많은 젊은이가 머리와 심장에 총탄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외신은 집계된 사망자 수보다 실제 인명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정부가 지난 8일부터 국내·국제전화와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막고 있어서다. IHR은 “확 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소식 통은 2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했다.

통화 가치 하락과 연간 40%에 육박하는 물가 상승률 등 경제난에 대한 불

이란 정부 “정규군까지 진압에 동원” 등장했다. 전화·인터넷 차단, 외부 소통 끊어 트럼프 “도울 준비 됐다” 군개입 시사 이란 “공격 뛴 미군 기지 때릴 것”

시위대, 혁명 때 축출된 왕세자 연호 망명 팔레비 “행동하라” 시위 촉구

만에서 촉발된 시위는 신정 체제 종식 요구로까지 확산됐다. 시위대는 그동안 금기시됐던 야야풀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겨냥한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한편,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축출된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 리자 팔레비(65)를 호출하고 나섰다. 이란 이민자가 많은 영국·독일·프랑스 등 서유럽 각지에서 열린 연대 시위에서도 “사(국왕) 만세” “팔레비와 함께 자유로”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목하고 “적의 음모를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하마드 모바해디아자드 이란 검찰총장도 성명을 통해 “시위에 참여하면 누구든 신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거리에서의 집단행동을 멈추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촉구했다.

무함마드 리자 팔레비 전 국왕의 장남인 그는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막대한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현재도 왕정 복귀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란이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징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 을 유지하고 있다.

시위대가 체제 종식까지 거론하자 이란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이란 정규군인 공화국군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국가의 이익과 전략적 기반 시설, 공공 재산을 수호하겠다”며 반정부 시위 진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위 사태의 배후로 적국인 이스라엘과 테러 단체 등을 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군사 개입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에 있는 비 군사시설을 포함한 광범위한 군사 타격 선택지를 보고받았으며, 타격을 승인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이란 내 군사 표적은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습도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같은 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이란 군사작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민구·한지혜 기자



‘그린란드 회담’ 다음주 열린다

덴마크·그린란드, 미 제안 수락
일시·장소·참석자 등 아직 미정
“1인당 1만~10만불 제공 검토”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숨기지 않는 미국이 내주 덴마크, 그린란드 정부 측과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환영 입장장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텔레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8일(현지시간) 현지 공영 DR 방송에 내주 미국과 회담과 관련,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정부와 함께 요청한 것”이라며 “필요한 대화”라고 반겼다.

그린란드 정부도 DR 방송에 루비오

장관이 발표한 덴마크와 미국 간 회담에 그린란드 역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비안 모즈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은 “그린란드 사안은 그린란드 없이 결정될 수 없다. 물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회담을 요청한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장소,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그린란드와 관련한 회담이 다음주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5만7000여 그린란드 주민에게 일시불로 금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4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8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를 덴마크에서 분리해 미국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현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구체적인 액수와 제공 방안 등을 불확실하지만 백악관 참모들

을 포함한 미측 당국자들은 그린란드 주민 1인당 1만~10만 달러 범위에서 논의를 해왔다고 소개했다.

안보 및 경제적 이유를 들어 그린란드를 확보할 필요를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구상을 하는 것은 결국 그린란드 장악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인 ‘구매’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덴마크 당국은 그린란드를 팔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崴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 One's Lab at UMC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Chiropractic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챔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루드/한아름(H-mart)과 챔틀리 루드에서 각각 5분거리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실리학 전공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한식



한식의 품격

4명의 셰프가 빚어낸
정통의 맛을 전합니다.

깊이 있는 정통 한식의 맛!!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혜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즉석 칼국수 신메뉴 출시!

Weekly Special

따뜻한 즉석 칼국수와 깊은 맛의 닭볶음탕
런치 뷔페에서 만나요.~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 인

홀 서버 (Hall Server)

이재명 정부 닷 올린 지 7개월인데...

공공기관 88곳 선장 없이 운항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개월 동안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12명이다. 인사가 지체된다는 평가를 받던 윤석열 정부는 같은 기간(219일) 32명을 임명했다.

중앙SUNDAY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올라온 공공기관 344곳(부설기관 포함)을 분석한 결과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됐지만 새로 운수장을 맞지 못한 곳은 88곳(25.6%)에 달했다. 이중 46곳(13.4%)은 기관장이 아예 공석이었고, 42곳(12.2%)은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임기를 다 채운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새로 임명된 12명 중 유정복 한국상 하수도협회장(지난해 7월), 박상진 산업은행장(9월), 송기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상 11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임진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이상 12월) 등 8명이 지난해 임기를 시작했다.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김종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등 4명은 연초 들어 취임했다. 또 절반 이상(58.3%)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거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보은 인사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엔 현저한 인사 지체란 현상까지 벌어졌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보은 인사를 찾기 위해 인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평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인선된 기관장

직책 / 이름 / 임기 시작일 / 주요 경력,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분석(2026년 1월 9일 기준)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장 김종수	서민금융진흥원장 김은경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성식	한국사회복지 협의회장 김현훈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장 임진택
2026년 1월 6일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2026년 1월 1일 한국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2026년 1월 1일 변호사 (사시 28회)	2026년 1월 1일 전 서울시 사회복지 협의회장 ※협의회 '총회'서 선출	2025년 12월 31일 전 제일기획 부사장	2025년 12월 22일 판소리 명창, 전 경기야트센터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19대) 김성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한주	한국수출입은행장 황기연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송기도	한국산업은행장 박상진	한국상하수도협회장 (13대) 유정복
2025년 12월 15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2017.11~2020.1)	2025년 11월 10일 전 민주연구원장, 전 국정기획위원장	2025년 11월 5일 전 수출입은행 상임이사	2025년 11월 3일 전 북대 명예교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장	2025년 9월 10일 전 한국산업은행 준법감시인	2025년 7월 22일 현 인천광역시장 ※ 3대~12대 협회장까지 모두 광역시장 출신

344곳 공공기관장 분석해보니

새로 선임 12명…4명은 연초 취임
절반이 대통령 측근 등 ‘코드 인사’
일부선 “보은하느라 시간 걸리나”

연봉은 1억9116만원으로 장관급 공무원 연봉(1억4533만원)을 웃돈다. 현행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고 청우까지 파격적이다 보니 공공기관장은 ‘보은용’으로 탑나는 자리가 됐다.

이한주 이사장은 대통령의 기본 소득·기본주택·기본급 등 기본 시리즈를 설계한 대표적인 죄족근 인사로 분류된다. 이 이사장은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땐 경기연구원장을, 민주당

당대표일 땐 민주연구원장을 맡았다.

송기도 이사장과 김은경 원장은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23년 각각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과 혁신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당 공천·혁신 작업을 뒷받침했다. 당시 김 위원장의 노인폄하 발언이 논란이 돼 혁신위가 조기 해산되는 사태도 있었다. 김성주 이사장도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다. 그는 국민연금공단 역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 이사장에 오른 인물이 됐다. 김종수 회장도 민주당 정책실장 출신이다. 김성식 사장은 대통령과 사시 28회 동기이면서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임진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임기 말기 경기야트센터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현재 리더십이 공백 상태인 88곳 가운데 25곳은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거나 후임자가 없어 전임자가 자리를 지키는 경우다. 2024년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내 14개 공항 안전을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1년 8개월째 공석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장 자리가 빈 곳은 산업통상부 산하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10곳, 보건복지부 9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부처와 협회를 맞춰 손발 역할을 해야 할 공공기관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 원

전 수출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김태운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산하부나 국토부 산하 기관은 예산 규모도 크고, 그만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며 “인선 지연은 곧 국민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문성이 담보된다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 온 인사들이 함께 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며 “대통령이 전문성은 물론 조직 장악력까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결격 사유를 걸러낼 인사 검증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신수민 기자

올해 2% 성장 전망…반도체지원 특위 만든다

정부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뛸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소비심리 개선 등 내수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이다. 하지만 원화 가치 하락과 급변하는 통상 환경 등 위험 요인을 고려하면 안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눈높이’보다 0.2%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로,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눈높이를 끌

제성장률은 올해를 포함해 4년 연속 2%의 벽에 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울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등을 고려하면 소비 회복세 또한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숨통은 트이겠지만, 핵심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뒤집을 수 있느냐다. 2010년 3%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1%대 후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대로라면 2040년대엔 0%대로 떨어진다. 성장 동력이 끼여가고 있다는 신호다. 정부도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날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재정·세제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빼내가 될 기본 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위한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퍼지컬 AI 세계 1위를 목표로 내세운 제조업 분야에선 로봇·자동차·선팩 등 7대 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그에 따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퍼지컬 AI만큼은 1등으

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차세대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그린수소·소형모듈원전(SMR) 등 초혁신 15대 프로젝트는 투자를 대폭 늘려 성과를 빨리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올해 30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바이오 분야는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등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에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방산·원전 등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는 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차원이다. 장원석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베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베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베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에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변호사 임종범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사무장 김진주

이름변경·교통사고·위임장

아포스티유·가족이민·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COWAY

신제품 스위치 정수기 출시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 크기입니다



•———— 4.3 inch ———•

* 본 디자인은 당사에 귀속된 지적재산권이며, 코웨이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을 금지합니다.

지역별 대표전화
Los Angeles, CA(HQ) (213) 386-3033

New York & New Jersey (201) 482-4011
Washington, DC (703) 992-0835

Atlanta, GA (678) 691-2195
Seattle, WA (253) 220-8893

Chicago, IL (847) 813-6293
Dallas, TX (972) 466-0999

민주당 새 원내대표 한병도..공천현금·통일교 첫 숙제

민주당 새 원내대표 한병도

문 정부 때 정무수석, 국회와 소통
이재명 캠프 국민참여본부장 맡아
당내 “당정관계 가장 잘하는 적임자”
한 “야당은 국정 파트너, 대화할 것”

법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 국
정과제를 속도감 있
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 이재
명 정부의 성공을 든
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
천 현금 의혹 등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야

당을 향해서는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

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

겠다”면서도 “내란 응호, 민생의 발목

을 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한 원내대표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
속으로 당선(전북 익산갑)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재선 실패 후 문재인 정부에

에서 정무비서관, 정무수석으로 일해

한때 친문계로 분류됐다. 2020년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한 한 원내

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

획위원장(2023~2024년)을 맡아 친명

계에도 발을 걸쳤다. 지난 대선에선 이

재명 캠프의 국민참여본부장을 맡았

다.

이 같은 복합적인 이력 탓에 민주당

내부에선 한 원내대표가 친명계는 물

론 구(舊)친문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

아 당선됐을 것이란 해석이 적지 않다.

수도권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의 핵심을 이뤘던 인사

들이 대거 한 의원 쪽에 서면서 의원들

에게 청와대와 통한다는 인식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

은 “한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도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된 한병도 의원(왼쪽)이 11일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4개월 동안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이끈다.

장진영 기자

사이다. 대표와 반목하거나 갈등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당·청 관계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 소통에 능하고 당·청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원내대표를 뽑은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당·
정·청 소통”이라며 “쟁점이 있을 때마다
원내대표단이 당·정·청과 항상 논

의·토의해 결론을 내는 민주적인 시스
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당·청 양측에 대한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도로 이해한다. 쟁
점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당·정·청의 생
각 차가 존재한다”며 “그조차도 발표
전 사전 절차·토론을 통해 최대한 이견
이 없도록 발표하는 게 여당의 능력”이
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도 주로 이 업무를

달성해 왔다.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노
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천 현금 의혹에 대해선 전수조사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
수조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
이라면서도 “전수조사 자체가 출마하
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기제
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돈 공천을 청산했던 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민주당스럽지 않다”며 “민
주당스러움을 찾기 위해 강력하게 앞
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수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천
현금 특검’에 대해선 “현안을 다 특검
하자고 하면 정신없을 것 같다. 수사기
관에서 전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
다. 우선 그걸 좀 지켜보겠다”며 선을
그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한 자
진 탈당 요구 등에 대해선 “오늘 바로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
을 피했다.

통일교 특검법, 2차 종합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대해선 “기본 입장은 오는
15일 기점으로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
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지방통합
추진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준비돼 가는 걸로 알고 있다. 내일(12
일)쯤 바로 서둘러서 야당과 논의해 보
겠다”고 말했다. 당내 친정·반청 논란
에 대해선 “한가한 얘기다. 오직 지방선
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한
다”고 말했다.

여성국·이찬규 기자

새 최고위원에 친청 이성윤·문정복, 반청 강득구.. 힘 실린 정청래 체제

최고위원 7명 중 4명이 친청 분류 정 “선거 상처 지우고 우리는 하나”



이성윤

문정복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으로 강
득구·이성윤·문정복 의원이 11일 당선
됐다. ‘반청(反정청래)파’로 분류됐던
강 의원이 1위를 차지했지만 ‘친청(親
정청래)파’에서 두 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김정호 민주당 중앙당선기획위원회
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
궐선거 후보자 결과 발표에서 “강득
구·이성윤·문정복 후보가 최고위원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투표 50%, 권리당원 투
표 50%를 합산한 결과에서 강 의원은

30.74%, 이 의원은 24.72%, 문 의원은
23.95%를 받았다. 반청파인 이건태 후
보는 20.59%를 받아 낙선했다.

중앙위원 투표에서는 강 의원이 유
효투표자 수 547명 중 375표(34.28%)
를 받아 1위를 기록했지만 권리당원 투

표에서는 이 의원이 47만5303명 중 31
만2724명(32.9%)의 지지를 받아 1위였
다.

“정 대표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수
도권 재선 의원)이라고 해석되던 이날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 대해선 “정 대표

에게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많았다.

정 대표는 지도부 내에서 자신이 지
명하거나 자리를 만든 두 명의 최고위
원(서삼석 의원, 박지원 변호사)에 이
성윤·문정복 의원이 가세하며 안정적
다수를 우군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대표와 원내
대표를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두 명의 최고위원(이언주·황명선 의원)
과 강득구 의원 등이 다른 목소리를 내
더라도 정 대표 노선이 관철될 가능성
이 커진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리당원을 대상으
로 ‘1인 1표제’(전당대회 투표권에서 대
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등을 없
애는 방안) 찬반 여론조사부터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정복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2차 종합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사법개혁까지 한 치의 물
러섬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고, 이성윤
의원도 “내란 정당 국민의 힘도 막히기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 의원이 1위로 지도부에 입성
한 것은 향후 당 의사결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맞대결을 벌일 것이라는 전
망이 나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
이다.

이날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마친 후
정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마음의 상
처 같은 것은 지워주시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하나다”고 외쳤다.

강보현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 정기적인 눈 검사
- 안구 건조증 치료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 안검하수(눈꺼풀 처진 개선)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나트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Penn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Invisalign

치아성형 · 신경치료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트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트라 치과 페어맥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유파이낸셜그룹**이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유파이낸셜**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선물 1 “내년도 메디케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9월 15일부터 30일 사이에 ANOC 편지를 받으시면
반드시 가지고 저희 회사로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내년도 혜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유파이낸셜이 정성으로 도와드립니다



선물 2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은퇴는 다가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은퇴계획이 없거나 충분히 성장하지 않죠?
이번에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보세요.
집안과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 이제는 살아서 성장하는 자산으로 바꾸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혜택을 드리는 **유파이낸셜** 그룹입니다.

선물 3 “혹시 모를 사고, 준비되셨나요?”

미국에서 열심히만 살면 될 줄 알았지만 현명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노력해서 모은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 누가 대신 병원비를 내줄까요?
장기간호가 필요할 때 누가 나를 간호해줄까요?
지금 준비하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유파이낸셜이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파이낸셜 그룹

TEL. 703-961-8811

email: info@yoofg.com

5900 Fort Dr. Suite 407, Centreville, VA 20121



내란재판 필리버스터 15시간…‘윤 어게인’ 결집됐다

김용현 변호인, 유튜브 라이브서
“재판 중계는 기회, 최대한 활용”
윤 측 “변론에 최소 6시간 필요”
내일도 ‘심야 마라톤’ 재판 예상
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 가능성



웃고…시계 보고…얼굴 만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앞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이 지연돼 시작도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결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재판 피고인 측에서 결심재판을 강성지지층 결집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이 15시간 동안 진행되다 결국 13일 다시 진행하게 되면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변론에 최소 6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이날도 재판이 마무리 안 될 가능성 있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에서 “저희는 공판이 중계되는 환경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적들이 윤 대통령을 팝박하기 위해서 정치 사건을 재판 사건으로 바꿔 놨다. 그 외파에 맞춰서 싸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9일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각 피고인

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이번 절차가 1심에서의 마지막 변론인 만큼, 모든 법리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다”고 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론은 10시간 가까이 길어졌다.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는 읽는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 측 지적에 “제가 혀가 짧아서 빨리 하면 말이 꼬인다”고 답하기도 했다.

13일에도 재판이 길어져 절차가 마

무리되지 못하면 결심을 마지막 위해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규칙 145조는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견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시간 내에 마무리하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까지 재판장이 시간을 충분히 준 건 재판의 공정성 차원에서

어떠한 책도 잡히지 않았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시간 제한은 방어권 제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13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 그 이후는 없다”며 “언제가 되든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법원 정기 인사인 오는 2월 23일 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면 재판부가 교체돼 변론 간접 절차에 수개월을 써야 할 가능성도 있다.

초유의 ‘법정 필리버스터’로 윤 전 대통령은 더욱 바쁜 일주일을 맞게 됐다. 13일로 연기된 구형에 이어 16일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첫 1심 선고까지 3일 터울로 받게 됐다. 김건희 여사도 14일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으로 재판이 새로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은 평양 무인기 추락 등 일반적 혐의 첫 공판, 13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먼저 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연기됐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결심 공판이 잡혀 있다. 이어 14일엔 수사대상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범인도 피의로 1차 공판준비기일, 16일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16일 선고는 파면 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판결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들을 비롯 총 8개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연이어 기소해 온 결과다. 최서인·김성진 기자

청와대, 반도체 호남 이전설에 “강제로 뽑아 옮기지 않는다”

여당 호남의원·단체장 청와대 오찬 “정부가 기업 이전, 있을 수 없는 일”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호남 이전설’에 대해 청와대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광역단체장을 만나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강제로 뽑아 옮기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

린 이재명 대통령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호남 이전설’은 지난해 12월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 용인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전기가 많은 그쪽(호남)으로 뽑아야 하는 건 아닌지 고

민이 있다”고 말한 뒤 불거졌고, 전북 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삼성전자 이전’을 주장해 확산됐다.

복수 참석자들은 11일 통화에서 “당시 청와대 측에서 ‘용인 반도체 기업을 뽑아서 옮기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 했다”며 “다만 ‘호남이 전력 여건이 좋 은 측면이 있으니, 신규 기업·설비의 입

지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당시 오찬에는 이 대통령 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배석 했다. 호남 지역 참석자 사이에서 “용인 반도체 기업이 호남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식의 얘기가 나오자, 청와대 측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광주·전남 광역단체장·국회의원 초청 전날이던 지난 8일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정부가 기업에 대해 이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을 벌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오현석 기자

김경 “강선우에 1억 줬다 받아” 경찰에 공천 자술서

〈서울시의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공천 대가 뇌물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였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 측은 최근 강 의원 등이 연루된 공천 대가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신이 받는 혐의

와 관련한 자술서를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가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자술서를 작성하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관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자 강 의원은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시시했다”고 밝혔는데, 김 시의원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셈이다.

김 시의원은 해당 사건이 공공범죄

수사대에 배정된 지난해 12월 31일 개인 일정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에 머물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 전시회(CES 2026)’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키웠다. 이어 7일 오후엔 텔레그램을 탈퇴한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 인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오는 12일 오전 입국하는 즉시 출국을 금지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후엔 전직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씨는 다른 전직 구의원 전모씨와 함께 김 전 원내대표 측에 총 3000만원을 건넸다가 수개월 뒤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기된 의혹이 많은 만큼 경찰은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강제수사 또한 검토 중이다. 다만 한편에선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면서 수사 를 둘러싼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정재 기자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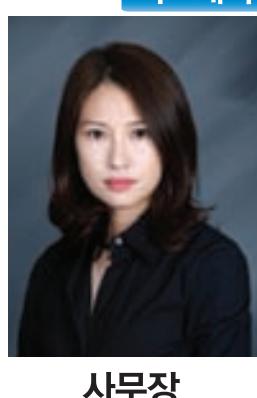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 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 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독점 Burke

싱글홈

방4, 화3 1/2, 2 Car Garage,
집 전체 리모델링, 새 지붕, 새 HVAC 시스템,
새 창문, 새 DECK,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모든 화장실 업데이트

\$975,000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방3, 화2 1/2,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Stainless Steel Appliances,
새 페인트, 집 전체 리모델링,
교통 편리

\$5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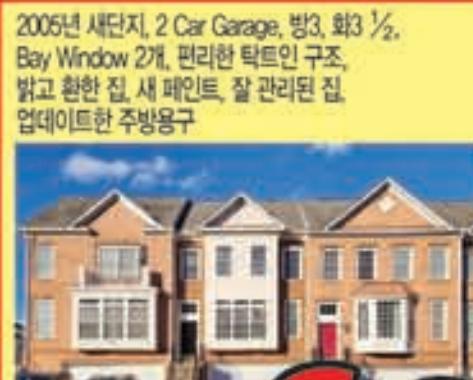


독점

Dumfries

타운홈

\$469,900



Sold



독점

Springfield 타운홈

\$699,900



Contract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자들 덕에 먹고사는거 아녀”… 외국인 천국, 영암의 비결

영암지역 산단 인력 30%가 외국인 주민 “노동력 아닌 가족이라 생각” 이민자 “사람들 좋아 계속 살고 싶다”

전남 영암군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크바르 호지야바르(28)는 휴일엔 한국인 집주인과 평상에 앉아 맥주를 마신다. 2년 전부터 조선소에서 용접 일을 하는 아크바르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여기 사람들이 좋아서 10년, 20년 계속 살고 싶다”고 했다. 원룸촌 집주인 박찬수(79)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몸 조심하리’고 인사한다. 자들 덕에 우리도 먹고사는 거 아녀”라고 말했다.

영암은 외국인 비율(21.1%)이 전국에서 압도적 1위인 국제도시다. 베트남(2521명), 네팔(1572명), 우즈베키스탄(1158명), 중국(834명) 출신 순으로 이주노동자가 많다. HD현대삼호와 대불국가산업단지 인력의 30%가 외국인이다. HD현대삼호 협력사 덕인기업 주순준(50) 소장은 “처음엔 말이 안 통해 답답했지만 나부터 인사말을 배우고 먼저 손을 내밀자 외국인 동료들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웠다. 내 가족이라 생각해야지 노동력으로만 보면 다가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제주도에선 매일 새벽은 밀한 ‘불법체류자(불체자) 수송 작전’이 펼쳐졌다. 제주도 한경면의 불체자 숙소 앞. 어둠을 짙은 흰색 1톤 트럭이 다가오자 짧은 머리의 중국인 남성이 일당 10만원에 인근 마을농장을 향해 떠났다. 9년 전부터 숙소를 운영했다는 장모(50대·중국 국적)씨는 “이 동네에 일할 한국인은 80대 노인밖에 없다. 우리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고 했다.

두 자치단체는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의 전국 17개 광역 시도, 외국인 1

만 명 이상 22개 기초단체에 거주하는 내국인 6000명 상대 조사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영암은 이민자를 수용한다는 응답이 77%로 통틀어 1위였다. 2위는 통일교 본부가 있는 경기도 가평군(74.3%), 3위는 외국인 고급 인력 유치를 적극 추진한 고양시(74.1%) 순이었다. 전남 영암군은 등록외국인 6000명을 상대로 현재 살고 있는 시군 구에 대한 소속감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경기도 고양시(77.9%)에 이어 조사 대상 중 2위(72.3%)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주도와 경기도 부천시는 ‘이민자 수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27.0%, 28.2%로 각각 광역 시도와 기초 단체 중 가장 높았다. 제주의 20대 응답자의 절반 이하(45.8%)가 이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한 반면 영암의 60대 이상 10명 중 9명(88.4%)이 구성원으로 인정한 점도 눈에 띄었다.

유민이 연구위원은 ①합법적 체류자격 ②내·외국인 간 상호교류 여부 ③특정국 이민자에 대한 호오(好惡) 등을 지역별 수용도를 가른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 안정적 비자를 받고 지역 핵심 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민이 많고, 폐쇄적 커뮤니티 대신 지역민과 자주 교류할수록 통합지수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불체자) 수가 2013년 1285명에서 지난해 8월 말 1만733명으로 약 9배 수준으로 폭증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중 9100명(85%)이 중국인이다.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관광객에 대한 불만도 많다.

김도균 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불체자를 다 없애자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정답도 아니다. 노동시장과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평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영암=전율, 제주=김정재 기자



전남 영암군 삼호읍 HD현대삼호 조선소에서 협력사 소속 한국인 소장(왼쪽)과 네팔 출신 노동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HD현대삼호]

“쓰레기 무단투기 골머리” “밤샘 파티”

일상 속 이민자 갈등 어떻게 푸나

“주민자치회에 외국인 임원 도입”
“이주민에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송악어린이공원에는 쓰레기들이 작은 언덕을 이루고 있다. “3·1 만세운동의 독립투사 훈이 깃든 이 땅을 쓰레기 무덤으로 만들지 말자”는 팻말까지 걸렸을 정도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서해환경 직원 정하영(57)씨는 “여기 쓰레기 버리는 사람 열 중 넷은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온갖

오물에 유리 조각이나 뾰족한 나뭇가지까지 섞어 버린다. 손을 베이고 찔리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화성시 전체 외국인(6만8820명)의 23.9%인 1만6489명이 향남읍에 산다. 빌라촌 주민 다수가 외국인이지만, 이민자들만 무단 투기를 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비단과 분노의 화살은 오롯이 이민자들에게 집중됐다. 인근 식당 주인 김모(64)씨는 “가까이서 뻔히 보고 있는데도 외국인 새댁이 쓰레기를 검은 봉지째 막 갖다 버린다”며 “주말

에 쓰레기가 쌓여 월요일엔 공원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도 안 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내국인 이민자 수용도(30.7%)가 전국 최하위인 경기도 부천시 역시 생활 갈등이 주요 요인이다. 부천 심곡본동 주민센터에 게시된 폐기물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를 보면 외국인 이름이 절반을 차지한다. 부천 남부시장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 노상 방뇨를 금지한다는 중국어 스티커가 곳곳에 붙었다. 부천은 중국인과 중국 국적 동포들이 밀집 거주하는 베드타운이다.

1인당 GDP, 22년만에 대만에 밀렸다… 올핸 격차 더 커질듯

작년 한국 1인당 GDP 3만6107달러 대만, 작년 성장률 7.4% 고공행진 올해 1인당 4만달러 돌파 가능성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감소하며 3만6000

달러대에 턱걸이할 전망이다. 더딘 성장세와 원화가치 하락의 영향이다. 같은 기간 대만은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GDP 규모에서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먼저 4만 달러를 넘어선다는 관측도 나왔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달러 환산 경상 GDP는 전년보다 0.5% 감소한 1조8662억 달러로 추산됐다. 경상 GDP가 줄어든 건 2022년(1조7987억 달러)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1인당 GDP도 3만6107달러

로 전년보다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 예상치(경상 GDP 기준 3.8%)를 토대로 산출한 지난해 경상 GDP에 달러 대비 원화가치(연평균 1422.16원)를 대입한 뒤 총인구(5168만4564명)로 나눈 값이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처음 3

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며 등락을 거듭했고, 3만 달리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은 상승했지만 3년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가장 큰 요인은 성장둔화다.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2년 이후 4년 연속 3%에 못 미쳤다.

특히 지난해는 1.0%로 예상되는데,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셀러

- 집 고쳐서 팔까? 아님 AS-IS로 팔까? 고민되시는 분 전화 주세요.
- 집 팔기전에 고치고 싶은신 분들, 큰 돈들이지 않고 집수리 깔끔하게 하여 확실히 팔아 드립니다. 고친 비용은 이자없이 크로징에서 내셔도 됩니다.

바이어

투자용 주택 사시거나, 처음 집 사시는 분들은 엉뚱한 집 사서 후회 하지 마시고 꼭 비카리 부동산과 상담해 주세요. 자산 증식이 될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임대 주택

확실한 세입자 찾아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매릴랜드, 디씨 임대 면허 관리 해 드립니다.

RENT	
콘도, 알렉산드리아	\$1,750
방1, 화1, 주차 2, 모든 관리비 포함	
싱글홈, 포토팩	\$4,000
방3, 화2	
타운홈, 센터빌	\$3,300
방3,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타운홈, 페어팩스	\$3,600
방3, 화3.5, 주차 2, 2월초 입주	
타운홈, 센터빌	\$3,500
방4,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비카리 부동산

전화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텁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A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앤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매릴랜드 / 301-399-0140

권력 잘 쓰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잘못 쓰는 건 굉장히 쉬워

달변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말을 멈추었다. 6초. 막힘 없던 말에 막힘이 생기니 팽팽해졌다. 그러다 느릿하게 말했다. “권력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권력을 잘못 쓰는 건 굉장히 쉬운 것 같다.” 그에게 “권력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보인 반응이었다.

8일 서울 상암동에서 그와 만났다. 보수 정치 얘기를 위해서였다. 그와 2023년 1월 만났으니 3년 만이었다. 당시 윤석열 정권 2인자였으나 윤 전 대통령과 멀어졌다. 계엄에 반대하다 ‘윤어개인’의 표적이 됐다. 이젠 강한 지지 못지 않게 강한 비토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밀려날 처지이기도 하다. 그사이 자리멸렬한 국민의힘은 더 자리멸렬해졌다. 3년 전 그는 확신이 있었다. 이번에도 그랬다. 다만 결이 달랐다.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했다. “유연성을 배워가고 있다”는 말도, 자신이 옳았더라도 상처받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여러 차례 했다. 스스로 ‘보수 정치인’으로 규정하며 “왜 국민의힘을 안 떠난다고 얘기하나면 정치적·정책적인 면에서 나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을 잘못 봤다”라고 말했다.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할 것이라 강한 확신과 이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다. 그에게 오랜 미스터리 일윤 전 대통령부터 물었다.

-권력을 만들어냈고 최고 권력을 지근거리에서 관찰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을 만들어냈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 나는 문제인 정부 때 할 일을 하다가 탄압받은 공무원 정도다. 권력은 국민이 만든 거다. 시대정신이, 상황이 만들어낸 거다. 장관을 했고 여당 대표를 했으나 권력을 관찰한 건 맞다. … 권력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권력을 잘 못 쓰는 건 굉장히 쉬운 것 같다. 윤 대통령을 봐도 그렇고 이제명 대통령을 봐도 그렇다.”

윤 전 대통령과는 공적 관계, 혈맹 아냐

-윤 전 대통령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대통령이 되어서 바뀐 건가?

“사람의 전체를 알 수는 없었다. 나는 공적으로 같이 일한 사람이다, 사적·혈맹 관계가 아니다. 3특검이 ‘계엄을 막았다는 한동훈도 한동숙’이란 그림을 원했는데 안 나왔다. 이런 건 느꼈다. 검찰총장이 밖에서 보면 권력자처럼 보이지만 권력이 아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마주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

윤석열·김건희 잘못된 권력 운용
바로잡으려 했지만 결국 잘 안돼

난보수정치인, 국민의힘 안펴날 것
가짜 보수가 문제, 당원은 문제없어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날 데려다가
자기들과 싸우는 구도 만들려고 해

나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케미컬이 나
오늘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기미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말할 순 있는데 결
과론 아닌가. 권력을 잡는 건 극소수만
경험하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다. 어떻
게 되느냐 예측하기 참 어려운 것 같다.”

-유권자로서 난감한 일이다.

“우리가 윤 대통령에 대해 실제로 여
러가지 어려운 상황들, 질문들에 어떻게
应付,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해쳐나가는
지 볼 기회가 없었다. (정치인에게) 그
런 과정이 필요할 듯하다. 나는 요 몇 년
간 별일을 다 겪고 있다. 나한테 실망하
는 분도, ‘단단한데’ 하는 분도 있을 거
고 이 과정에서 나도 좀 준비해가는 면
도 있다. 윤 대통령이 그런 과정이 없었
던 건 문제인 정권의 실정이 심했기 때
문에 그냥 쓰겠다고 국민이 결정한 것
이다. 그것도 하나의 역사였다고 생각
한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에
적의를 드러낼 정도로 피포위 의식을 느꼈
다면, 한 전 대표가 적어도 인간적인 미안함
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이) 피포위 됐다고 느
끼는 게 타당한가. 윤 대통령과 김건
희 여사가 했던 권력 운용이 잘못됐다
는 부분은 거의 100% 국민이 동의하지
않나. 어떻게든 바로잡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잘 안 됐다. 공개적으로
한 번이라면 비공개적으로 100번쯤 될
거다. 얼마 전 윤한홍 의원이 말했지만
“한 10분간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
했던 옥을 다 들었다” 점점 그 자체로
적의를 드러냈다. ‘김옥균 프로젝트’(당
원계시판 논란 등 친윤계가 한 전 대표
를 끌어내려고 기획했다는 프로젝트)
니 하며 나를 공격했다. 와려 내가 포위
됐다. 대통령 옆에서 템버린을 치느냐
경종을 누르느냐의 문제였다. 나는 (경
종) 그걸 선택하고, 감수한 거다.”

-그로 인해 비토 그룹도 강고해졌다.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 나는 윤어개
인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나 유튜버
들을 비판하지,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정책적 면에서 나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게 아니다. 이분들이 충분히 그런 생각
을 가질 수 있다. 이분들은 설득이 대상
이고 많이 설득했다고 생각한다. 당대
표에서 쳐거나올 때 ‘죽일 놈’처럼 된 상
황이었다. 초반에 ‘괴해 있어라’라는 분
도 있었는데 난 회피하지 않았다. 명분
이 충분히 있으면 깨지더라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책을 냈고 대
선 출마도 했다. 그 후에도 더 설득됐다
고 생각한다. 장동혁 지도부 조차 계엄
을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일단
은 거 아닌가.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
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정권은 계엄 빼
고 나쁜 짓을 다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
다. 이게 가능한 게 민주당이 계엄 치트
키(게임에서 비정상적 우위를 얻는 속
임수 명령어)를 가지고 있어서다. ‘너희
계엄 했다’가 전가의 보도처럼 먹힌다.
우리 지지층, 국민은 이걸 어떻게든 이
기고 싶어한다.”

-그래서 지난해 말 ‘모두 함께 싸우고 지
켜내야 할 때’라고 했나.

“6개월간 장동혁 대표 체제를 비판한
적이 없다. 당대표 경선 이후 무조건 이
재명 정권하고만 싸웠다. (당내 갈등을
두고) 얼굴 맞대고 네가 옳으느냐 마나 토
론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감정적 문제이고 생각·인식의 문제이기



2024년 12월 한동훈 당시 대표가 당대표 사퇴 회
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다. 야밤에 한덕수로 후보 바꿔치기 사
태가 났었을 때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
다. 이 당을 지키고 이 당을 통해서 좋은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닌가. 보수는 문제가 없다. 일부 보수
정치인이 문제다.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문제가 없다.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문제다.”

비토 그룹 열심히 설득 중…요즘 유연해져

-극단적 보수 유튜버를 극단적인 상업세력,
상업적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비판한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
지하는 발언을 강력하게 해버리면서
이들이 (정치의) A급 테이블의 한구석
을 차지했다. 그 여파를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뭐라고 (고언)하면 ‘종·조·동
은 카르텔이야. 고성국을 봐’하며 링크
를 보냈다. 대통령을 망치는데 큰 역할
을 했던 그 사람을 입당시켰다.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과라는 말은 하긴 했지
만 ‘윤어개인’과 절연하지 못하는 것이
다. 이들 때문에 중도 보수나 상식적이
고 온건한 보수들이 우리 옆에 서지 않
는다. 고성국·장예찬·박민영·김민수이
런 사람이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오도
되니 이쪽으로 안 온다.”

-당내에서 오랜 싸움을 하게 될 듯하다.

“역사를 볼 때 중요한 개선이 있었을
때 그걸 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조심하려고 한다. 선의로 일하는 건 맞
지만 능력 부족이나 판단 미스, 나도 인
간인데 감정 이런 게 있을 게 아니냐, 많
이 들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60, 70%
정도의 확신인데 신뢰할 만한 분들의
반대가 많다. 그러면 접는다. 몇 년 전에
고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낀다. 많이 유
연해지려고 하고 있고 많이 유연해졌다.”

그에게

“한 전 대표가 논란을 진작에 설명하고 털
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윤 대통령이 마지막 독대에서 ‘당계
를 너무 험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
다’고 했다. 일종의 생색내는 말이었는
데 자신이 시켰다는 얘기이지 않나. 당
계는 당에서 익명을 보장해준 계시판
이다. 그걸 공개하는 선례는 대단히 나
쁜 거다. 그래서 대응을 안 했던 건데 당
에서 공개하니 설명을 안 할 수 있나.”

그에게

“윤리위가 정계 결정을 한다면.

“결정하면 그때 생각하겠다. 공당으
로서 당의 저력을 믿는다. 허위 공소장
같은 거로 하겠다? 상식적으로 그런 일
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그에게

“국민의힘을 고쳐쓸 수 있다고 보나.

“우리는 양당제 국가다. 굉장히 중요
한 역할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한
다. 내가 이 당을 사랑한다는 건 두 장
면으로 말할 수 있다. 계엄 때 이걸 막
지 못하면 이 당이 절멸한다고 생각했
어야 하지 않나.”

고정애 기자

1. 센터빌 벽돌 타운	SOLD \$589,000	방3, 화2.5, 치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
2. 애쉬번 타운	\$660,000	방 4, 화 3.5, 치고 2, 최고 학군, RT267/7, 멀리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같은
3.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스텔링 타운	SOLD \$645,000	2014년, 방3, 화2.5, 치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 개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개인스빌 레이크 매너스 Stonewall Golf Club 내 리저버 싱글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Sold	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치고 2 2. 매너시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치고2 3. Bristow 55+ singl \$750,000 방4, 화3.5 치고 2
7. 우드브리지 싱글	SOLD \$649,000	1997년, 방4, 화3.5 치고1, 윗층, 최고 학군, 전부 리모델링 포토맥 블/R195, RT1, RT234, 디아출크 펜리
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 5.5, 치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워터, 드레스룸, 인문우 스위트, 미더어머, 케임룸, 바 포럼,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아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9. 알디 싱글	\$869,000	2004년, 방4, 화2.5, 치고2, 전체마루, 굿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Under Contract

1. 센터빌 벽돌 타운	SOLD \$589,000	방3, 화2.5, 치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
2. 애쉬번 타운	\$660,000	방 4, 화 3.5, 치고 2, 최고 학군, RT267/7, 멀리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같은
3.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스텔링 타운	SOLD \$645,000	2014년, 방3, 화2.5, 치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 개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개인스빌 레이크 매너스 Stonewall Golf Club 내 리저버 싱글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Sold	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치고 2 2. 매너시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치고2 3. Bristow 55+ singl \$750,000 방4, 화3.5 치고 2
7. 우드브리지 싱글	SOLD \$649,000	1997년, 방4, 화3.5 치고1, 윗층, 최고 학군, 전부 리모델링 포토맥 블/R195, RT1, RT234, 디아출크 펜리
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 5.5, 치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워터, 드레스룸, 인문우 스위트, 미더어머, 케임룸, 바 포럼,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아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9. 알디 싱글	\$869,000	2004년, 방4, 화2.5, 치고2, 전체마루, 굿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Under Contract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 VA, MD, DC 면허 소지

</div



jglconstruction.com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센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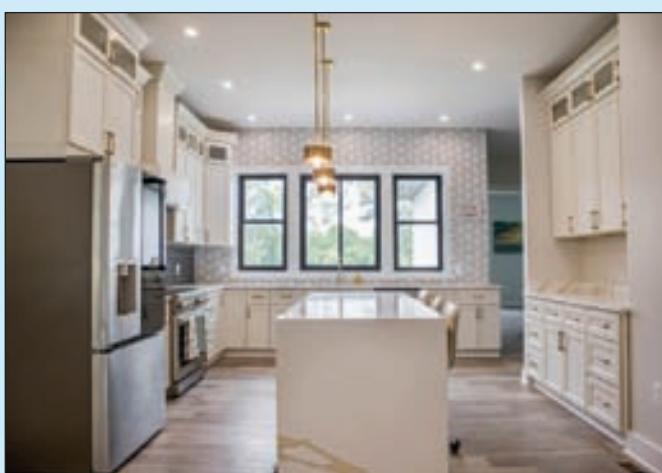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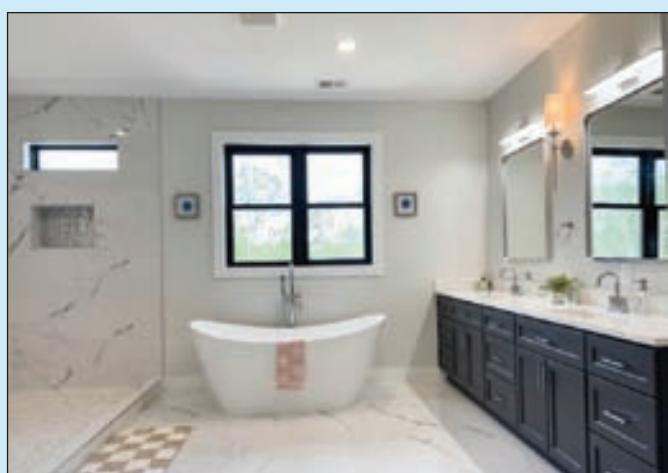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우리말 바루기

'미망인'에 대해

고대에는 순장(殉葬)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순장이란 통치자 등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신하를 죽여 함께 묻거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뒤따르게 하는 장례 풍속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생겨난 말이 '미망인'이다. 미망인(未亡人)은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 뜻이다. 춘추시대 역사를 기록한 책인 『춘추좌씨전』의 '장공편'에 '미망인'이란 표현이 나온다고 한다. '미망인'은 남편을 따라갔어야 하나 그러지 못해 죄를 지은 사람이라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남편과 사별한 여자가 남들에게 스스로를 낚추어 이르는 말로 주로 사용돼 왔다.

세상이 변한 요즘에 생각해 보면 순장이란 미개하기 짝이 없는 풍습이고 미망인이라 부르는 것 역시 사리에 맞지 않는다.

독자마당(시)

그리움의 아픔 / 김경숙

별하나에 어머니의 그네를 걸어 놓고
꿈길 따라 밤새워 어머니의 그네를 밀던 시인
이었습니다.
옥수동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있던 그네
병색이 짙은 어머니를 태운 그네를
미국 베지니아 하늘에서도 볼 수 있는 별에
옮겨 놓고
이천이십일년 일월 육일 그시인도 또 하나의
별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빛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그네를 밀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별
빛과 함께 보입니다.
별하나에 어머니의 그네-
별하나에 시인과 어머니-

①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알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문화산책

'샘터'의 휴간을 보는 마음



장소현
시인·극작가

나이가 좀 든 이들은 월간잡지 '샘터'를 기억할 것이다. 작고 얕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는데, 뜻밖에 가슴을 울리는 글들이 알차게 실려 있던 잡지, 맑고 시원한 물 찰랑거리는 샘터 같은 책... 개인적인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이들도 꽤 있을 것 같다.

그 월간 샘터가 2026년 1월호(통간 671호)를 마지막으로 무기한 휴간에 들어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창간 56년 만이다. 무기한 휴간에 대해 김성구 발행인은 잠시 쉼표를 찍는 것이고, 힘을 길러서 맑은 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 한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스마트폰이 종이책을 대체하고 영상 콘텐츠의 수요가 활자 미디어를 월등히 뛰어넘는 시대적 흐름을 이기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독서 인구의 감소, 인쇄 매체의 전반적 쇠퇴로 영상 콘텐츠가 활자 미디어를 뛰어넘는 시대적 흐름을 못 이겨 일단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한 시대가 저물고, 종이책의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위기를 실감하며 마음이 찐하다. 출판 잡지계 전체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월간 샘터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교양지'를 표방하며 1970년 4월 창간된 한국 최장수 교양지다.

창간발행인 고(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은 "샘터는 거짓 없이 인생을 걸어가려는 모든 사람에

게 정다운 마음의 베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스타 필자'들의 맑고 깔끔한 글과 평범한 사람들에 소소한 일상을 쓴 진솔한 글들이 어우러져 공감대를 이루며 큰 사랑을 받아, 디지털 시대 전인 1990년대 초까지는 월 50만 부 판매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시인이나 수필가 피천득 교수, 법정 스님, 소설가 최인호, 이해인 수녀, 동화 작가 정채봉, 장영희 교수 등이 지면을 빛냈다. 소설가 한강, 정호승 시인 등 많은 문인들이 샘터의 맑은 물을 마시며 성장했다. 최인호는 자전적 이야기인 연재소설 『가족』을 34년간, 법정 스님은 수행 중의 사색을 기록한 『산방한담』을 16년간 연재했다. 장육진, 천경자, 이종상 등 유명 화가들이 그린 표지 그림과 삽화로도 유명하다.

샘터가 월간지로 사랑받아 온 비결의 핵심은 독자들의 사람 냄새 물씬한 소박한 삶의 이야기들이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만1000여 개에 이르는 독자의 사연과 목소리를 담았다. '어머니

에게 편지 보내기' 공모에서는 한 달에 1만여 통의 편지가 날아들기도 했다고 한다.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깊은 공감과 감동, 웃음을 자아내는 소박한 삶의 이야기들은 많은 이들을 위로했다.

휴간호인 2026년 1월호의 표지는 창간호와 같은 반 고흐의 그림 '장미와 해바라기'로 꾸며졌고, 특집도 창간호와 마찬가지로 '젊음을 아끼자'를 주제로, 창간호에 기고했던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오랜 단골 필자였던 이해인 수녀, 편집부 기자로 근무했던 정호승 시인 등의 글이 실렸다. 창간호와 같은 표지그림과 특집을 실은 의미를 더듬어 보게 된다.

월간 샘터는 지난 2019년에도 그해 12월호를 마지막으로 무기한 휴간 방침을 발표했으나, 당시 기업 후원과 애독자들의 구독 참여 등 각계에서 뜨거운 성원이 잇따르면서 재발간되어 발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번에는 어떨지?

한 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오는 현장에서 있는 심정은 참 복잡미묘하고 서글프다. 나 같은 아날로그 글쟁이의 마음은 한층 심하게 일렁인다. 세상이 변해도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는 있는 법이다. 그걸 지켜내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저력이다. 그래서 김성구 발행인의 말에 더 희망을 걸게 된다.

"월간 샘터는 잠시 쉬어 가지만... 물질보다 삶의 태도를 중시하는 샘터의 정신을 계속 지켜나갈 방법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재정칼럼

최고점 다우 지수



이명덕
재정학 박사

2025년 11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이하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8000선을 돌파했다. 다우지수가 처음 1만을 넘기기까지는 무려 103년이 걸렸지만, 그 이후 상승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1만에서 2만까지는 18년, 2만에서 3만까지는 4년, 그리고 3만에서 4만까지는 불과 3년 반이 걸렸다.

이처럼 상승 속도가 빠른 이유는 단순하다. 1만에서 2만으로 오르려면 100% 상승이 필요하지만, 3만에서 4만으로 가는 데는 33% 상승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수가 높아질수록 같은 숫자 만큼 오르는 데 필요한 시간은 자연스럽게 짧아진다.

미디어는 연일 사상 최고치 소식을 전하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든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라는 조급함이 생긴다.

1950년 이후 주식시장은 수없이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왔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고점에서 투자한 경우에도 장기 평균 수익률이 연 10.3%에 달했다는 점이다. 반면 다른 시점에 투자

한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은 11.3%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운이 좋지 않아 '최고점'에서 투자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산은 결국 성장해 왔다는 뜻이다.

작년 주식시장은 30번이 넘는 새로운 최고점을 기록했다. 오늘의 최고점이 내일의 최저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집착하기보다는 시장에 계속 머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투자 전에 꼭 점검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투자 목적에 맞는 위험 조절이다.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노후 준비 자금이라면 일정 수준의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다. 반면 이미 은퇴했다

면 수익보다 자산의 안정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

둘째,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다. 자산은 주식, 채권,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기본이다. 지난 90년간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 채권은 약 5.5%였다. 채권은 수익률은 낮지만, 변동성이 작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셋째, 분산 투자다. 시장의 방향도, 어떤 산업이 오를지도 미리 알 수 없다. 따라서 미국과 해외 주식, 대형주와 중소형주, 부동산 등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채권 역시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시장은 연평균 약 1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금을 약 네 배로 키웠다. 이런 성과는 시장을 정확히 맞춘 사람이 아니라, 시장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얻은 보상이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시장을 맞추려 애쓰기보다,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투자한 사람만이 주식시장의 높은 수익을 받는다. 새해를 맞아 제대로 하는 투자로 우리가 모두 큰 부자 되기를 희망해 본다.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pke.,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 예촌 앞 빌딩 3층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자동차 사고후유증
- 척추디스크통증
- 두통, 목, 허리 통증
- 손, 발 통증 및 저림
- 어깨 결림 및 통증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임기)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Q 2026년 시니어 메디캘 자산 규정, CD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문= 저는 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캘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시니어입니다. 최근 2026년부터 시니어 메디캘에 자산 기준이 다시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싱글은 13만불, 부부는 19만 5천불을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CD(양도성 예금증서)를 보유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주변에서는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정말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답= 2026년부터 시니어 메디캘에 자산 기준이 다시 적용되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싱글은

13만 달러, 부부는 19만 5천불을 초과할 경우 메디캘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CD처럼 현금화가 쉬운 금융 자산을 가진 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턱대고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은 증여 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메디캘 자격 심사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CD를 해지해 현금으로 인출한 뒤 여러 계좌로 나누어 보관하더라도 메디캘에서는 이를 모두 합산해 보기 때문에 자산 기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자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메디캘에서 계산되는 자산 영역에서 비자산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불 장례비, 치과·안과 치료, 보정기 등 의료 목적 지출이나 욕실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공사 같은 주거 안전을 위한 집수리 비용은 인정됩니다.

또 하나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SPIA, 즉 즉시 지급 연금입니다. SPIA는 일시납으로 납입한 뒤 즉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CD는 언제든 인출이 가능해 자산으로 계산되

지만, SPIA는 종도 해지가 불가능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연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즉시 지급되는 SPIA여야 합니다. 이연 연금은 여전히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70세 한 고객은 CD를 SPIA로 전환해 매달 1,234불을 지급받았고, 이 중 약 70퍼센트는 원금 반환으로 인정돼 메디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메디캘 개선을 마친 분들은 다음 개선 전까지만 정리하면 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풀 정
교육 박사

Q 의대·치대 준비생, 겨울방학을 그냥 보내면 안 되는 이유

▶문= 짧은 겨울방학, 의대·치대 진학 준비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하면 좋은가요?

▶답= 여름방학이 세 달 이상 이어지는 것과 달리, 겨울방학은 대개 4~5주에 불과하다. 기간만 놓고 보면 짧은 휴식처럼 보이지만, 미국 의대·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향후 진로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이유로 잠시 쉬겠다는 생각이 연말연시로 이어지

면서, 특별히 한 일 없이 방학이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의대·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공백기는 준비 과정 전반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겨울방학 전략의 핵심은 기간이 아니라 집중도에 있다. 짧은 방학 동안 장기 활동을 새로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단기 간이라도 의미 있는 경험을 쌓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쉐도잉이다. 일주일 내외의 집중적인 쉐도잉이다. 일주일 내외의 집중적인 쉐도잉 경험만으로도 학생들은 실제 의료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진로에 대한 이해를 구체

화할 수 있다. 미국 의대들이 쉐도잉 경험을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겨울방학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학생들의 경우, 활동 선택에서 더욱 신중함이 요구된다. 단순히 '무엇을 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 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다. 미국에서 장애인 봉사나 시니어 센터 활동을 해왔다면, 한국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봉사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활동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확보될 때, 해외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해외 체류가 아니라 학생의 가치관과 진로 의식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해석되며, 미국 의대 지원서에서도 분명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

단기 해외 의료봉사에 대한 인식도 현실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 의료봉사는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지만, 1회성 단기 참여만으로는 입학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미국의 대들은 단발성 이벤트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참여와 헌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해외 의료봉사를 고려한다면, 저학년 때부터 동일한 프로젝트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기적 관심이 필요하다.



곽재혁
부동산 에이전트

Q 서던캘리포니아의 11, 12월 주택 시장

▶문= 서던캘리포니아 지난해 11, 12월 주택 시장 동향은 어땠나요?

▶답= 전국부동산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0.5% 증가했으며, 남가주 주요 카운티에서도 거래량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증가 폭은 2~3%선에 그쳐 뚜렷한 회복세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Zillow의 자료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일자리가 증가한 몇몇 주에 매매가 집중됐으며, 기존 매물 중 리스팅 계약이 종료된

매물이 약 17%에 달해 이 가운데 상당수는 다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규 주택 빌더인 Lennar는 바이어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이자율 인하, 옵션 무료 추가 등을 통해 2025년 세일즈를 늘렸으나, 이러한 정책이 약 21% 수준의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는 새 주택을 선호하는 지역에서 거래 실적이 유지된 배경이 실수요 확대라기보다는 정책적 요인의 영향이 커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외곽 지역의 중소 빌더들은 2026년에 접어들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

는 반면, 대규모 투자자들의 매입 활동은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매물 증가 추세는 이미 분명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바이어들은 장기간 보유가 가능한 조건을 갖춘 지역과 매물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매매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 점차 늘어나는 시기에는 거래량 증가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이러한 수요가 남가주 주택시장의 거래량과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인컴용 부동산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테넌트 보호를 위한 퇴거 유예와 금지 조치가 계속

되면서 거래 위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큽니다. 특히 LA를 포함해 정책 중심으로 주택 정책을 유지하는 도시들은 오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전후로 시장 흐름 왜곡과 신규 투자자 유입 감소라는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투자자들 역시 이제는 결정을 미루기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가격 상승 기대보다는 본인의 재정 상태에 따른 주택 유지 가능성과 안정적인 인컴 유지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 (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쇼설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 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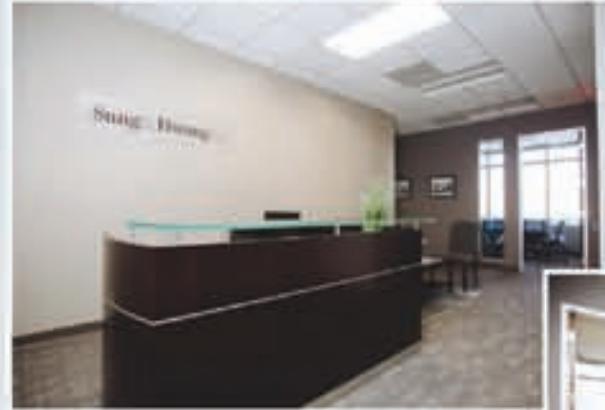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챔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Sung Hwang&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손해배상
- 민사소송
- 의료사고
- 비지니스 설립/매매/분쟁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Liquor License
- 보험

한국 비지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MD, DC, V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Baker Botts, LLP
NY, MD



폴 킴 변호사
PAUL W. KIM, JD, MPH.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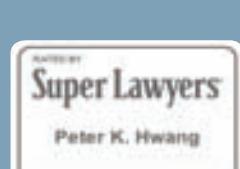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 Clemson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JD

약력

Eccleston & Wolf
MD

Sung Hwang&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아이·공 구별…‘돌발 상황’ 막는 자율주행차

엔비디아 ‘알파마요’ 공개

젠슨 황 “추론AI 최초로 접목”
어린이 ‘뛰어들 수도’ 인식
1분기 2단계 운행, 4단계 목표
AMD “파트너들과 공동 혁신”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를 실현할 핵심으로 자율주행을 꿈꾸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 ‘소비자 가전쇼(CES 2026)’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 풍情景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Alpamayo)’를 공개했다.

트레이드 마크인 가죽 재킷을 입고 나온 황 CEO는 “오늘 우리는 세계 최초로 생각하고, 추론하는 자율주행 AI 알파마요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알파마요는 자율주행차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돋는 기술 플랫폼이

다. 기존의 자율주행차는 특정 상황에 대처하도록 코드가 짜여진 규칙 기반 시스템이어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나 복합적인 환경 변화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

엔비디아는 이 지점에 ‘추론 AI’를 접목했다. 센서가 입력한 방대한 정보를 단순히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언어로 정의 내린 뒤 상황 맥락에 맞춰 판단을 내리는 ‘두뇌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아이가 도로 위에 갑자기 뛰어들어 공을 좁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은 아이와 공을 핀 셀 기반으로 인식한 뒤 ‘길가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물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검색한다.

반면 알파마요의 VLA(시각·언어·행동) 모델은 이를 ‘아이·공·도로’ 등 언어로 상황을 정의한 뒤, 거대언어모델(LLM)에서 ‘아이는 공을 쳐다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CES 2026에서 ‘엔비디아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

로 뛰어들 수 있다’는 인과적 추론을 거쳐 사전에 감속·제동을 준비한다. 황 CEO는 “알파마요는 자율주행 차량에 추론 능력을 부여해 복잡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주행하며, 주행 결정을 설명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황 CEO는 이날 벤츠와 협력해 알파마요 플랫폼을 적용한 자율주행차를 올해 1분기 미국 도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 미국에서 운행을 시작하고 2분기 유럽, 3·4분기에는 아시아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내놓는 건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레벨 2 단계의 자율주행차지만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정해진 구역 내에선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없는 레벨 4 단계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다.

AI 반도체 경쟁이 모빌리티 영역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AMD의 리사 수 CEO도 이날 차세대 AI칩과 플랫폼을 공개하며 “개방형 플랫폼 전략과 파트너들과 긴밀한 공동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인스팅트 MI455X’를 공개했다.

이우림·이가람 기자

불확실성에도…연말 온라인 쇼핑 역대 최고

할인 공세에 2578억 불 지출

BNPL·AI·SNS 구매 늘어

경기둔화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지난 연말 업체들의 할인 공세에 역대 가장 많은 소비 지출이 기록됐다.

온라인 거래 분석 플랫폼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온라인 쇼핑 지출은 총 257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연말 소비자들은 전자제품과 가전, 스포츠용품 등 고가 품목에서 대폭적인 할인을 노리며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한 날은 추수감사절 다음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로, 이날 하루 동안 소비자들은 142억 5000만 달러를 온라인에서 소비했다.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트의 비비 판디아 디렉터는 “가격에 매우 민감한 환경 속에서도 소비자들은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느끼면 지출을 마다치 않았다는 점이 이번 시즌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장에서는 10kg 케틀벨을 들어올리는 모습으로 흡입력을 과시했고, 최대 6cm의 문턱을 넘는 모습도 시연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CES 2026에서 ‘엔비디아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전자제품은 정가 대비 30% 안팎의 할인율이 적용됐으며, ‘선 구매 후결제(BNPL)’ 같은 분할 결제 수단을 활용해 나눠 갚는 소비도 늘었다.

지난 쇼핑 시즌에는 인공지능(AI)과 모바일의 영향력도 이전 대비 더 커졌다. AI 챗봇을 활용해 상품을 비교·검색하거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쇼핑이 더 빈번해지면서다.

어도비에 따르면 AI 기반 경로를 통해 유입된 트래픽은 일반 경로보다 실제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았다. 판디아 디렉터는 “전자제품이나 가전처럼 가격이 비싸고 비교 요소가 많은 상

품일수록 소비자들이 AI를 더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출 품목을 보면 소비자들은 비디오 게임, 스마트워치, 냉장고 등 고가의 내구재에 더 많은 돈을 썼다.

인기 장난감으로는 레고 세트와 영화 ‘위키드’ 인형이 꼽혔으며, 게임 콘솔과 비디오 게임도 강세를 보였다.

기술 제품 가운데서는 애플워치와 레이밴·메타 스마트 안경이 특히 많이 팔렸다. 연말 시즌 동안 온라인 전자제품 소비는 5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8% 증가했다.

우훈식 기자

말로 여닫는 삼성 냉장고

홈 AI 비전 선보여

틈만 있어도 설치할 수 있는 냉장고도 선보였다.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에어컨은 7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했다. 미니멀하고 정제된 디자인을 통해 조용하게 쾌적함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삼성전자는 소개했다.

‘비스포크 AI 스텀’ 로봇청소기(사진)는 물걸레를 고온 세척하고, 100°C 스텀으로 냄새 원인균을 살균해 위생적인 청소와 제품 관리를 지원한다.

전시장에서는 10kg 케틀벨을 들어올리는 모습으로 흡입력을 과시했고, 최대 6cm의 문턱을 넘는 모습도 시연했다.

삼성전자가 CES 2026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홈 서비스 제품들을 대거 선보였다.

지난 5일 단독 전시관에서 AI 기능을 강화한 냉장고 신제품은 “왼쪽 냉장고 문 열어줘”라고 말하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다시 “문 닫아줘”라고 하자 자동으로 닫혔다.

삼성전자는 “음식을 들고 있거나 손이 지저분할 때 요긴한 기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된 힌지 기술을 통해 불과 4mm의

틈만 있어도 설치할 수 있는 냉장고도 선보였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intelisystems
Think eMarketing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을 하세요!”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로 커스텀 마케팅 지원
(시운도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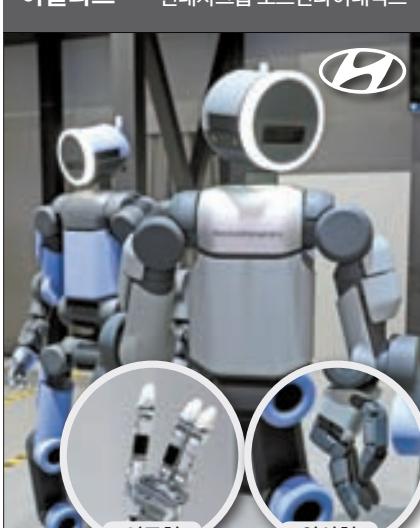
571-506-0220

sales.intelisystems.com/k1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몰,
www.intelisystems.com

옵티머스·클로이드 5개인데 … 아틀라스 네 손가락인 이유

휴머노이드 '손가락 전쟁'	
현대차 "제조 공정에 적합한 구조" 대세와 달리 4개 손가락 양산 택해 전문가 "산업현장선 3개로도 충분"	아틀라스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나믹스
	
손가락 갯수 3개 4개 카·무게 175cm, 85kg 190cm, 90kg 보행 이족보행 작업범위 및 특징 산업용, 자재 취급부터 정밀 조립 가능 음료 따르기, 대화 등 가능 시각 360도 카메라(전방향 인식 및 주변감지) 모션 56개 관절 회전 가능	옵티머스 2.5세대 테슬라 손가락 갯수 5개 173cm, 73kg 이족보행 산업용, 자재 취급부터 정밀 조립 가능 음료 따르기, 대화 등 가능 사람과 유사한 시야, AI 비전 통한 3D 그리드 가능 사람과 유사한 시야, AI 비전 통한 3D 그리드 가능 가사용, 빨래개기 등 メリ 전면 멀티모달 센서 시스템, 2D·3D 라이다, 스테레오 카메라, ToF(Time of Flight) 등 탑재 어깨·팔꿈치·손목 등 약 7개 자유도

지난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쇼(CES 2026)'에선 산업현장과 가정을 가리지 않고 쓰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대거 소개됐다.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산업용 로봇 '아틀라스'를 비롯해, 빨래를 개고 우유를 끼내는 LG전자의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 권투시합을 선보인 중국 유니트리의 'G1', 춤추기를 선보인 중국 애지봇의 'A2' 등이 앞다퉈 기술력을 뽐냈다.

특히 이번 '로봇 전쟁'의 관전 포인트는 손가락 기술이다. 사람의 손에는 20여개의 뼈·관절이 있다. 그 사이사이로 근육과 힘줄이 정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손가락을 접고 펴거나 힘을 줄 때 뼈·근육·힘줄이 유기적으로 미세하게 움직인다. 기계로는 쉽게 구현할 수 없는 만큼 '손가락 관절 기술'은 휴머노이드 하드웨어의 정점이자 승부처로 꼽힌다.

연구형 모델에서 손가락 3개(그리

파·gripper)를 채택했던 '아틀라스'는 이번 양산형 모델에선 1개를 더 늘려 4개로 바꿨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비롯해 '클로이드' 'G1' '이온'(스웨덴 기업 혼다) 등은 손가락 5개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손가락은 몇 개 일까. 배지훈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

는 "실제로 물체를 놓치지 않고 조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손가락 개수는 4개"라면서 "산업현장 투입돼 사물체를 잡고 조작하는 건 3개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딱딱한 물체부터 깨지기 쉬운 물체까지 힘을 미세하게 조정해야 하는데, 현재 산업용 로봇은 힘 기반이 아니라 위치기반으로 제어한다"며 "달걀처럼 깨지기 쉬운 물체를

살짝 잡는 조절·제어 기술은 완성단계지만, 이를 구현할 센서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손가락이 많으면 작업 영역이 넓어지지만 무작정 개수를 늘릴 수 만도 없다. 손가락 마디라는 초소형 공간에 모터·감속기·센서를 모두 집어넣으면서도 유연한 움직임을 확보해야 하는데, 액추에이터(신호해 대응해 작동을 수

행하는 장치) 수십개가 필요하고 크기·무게·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박준영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기술적 한계로 2~3지형 그리퍼를 선택하는 회사들도 많다"고 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도 아틀라스의 손가락 개수에 대해 "공장 안에서 쓰기에 가장 적합한 기능과 원가를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손가락 5개까지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간의 모습보다 더 효율적인 형태의 로봇은 없을까. 조성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교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로봇도 사람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기 시작했지만, 휴머노이드가 꼭 사람을 닮을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실제 아틀라스·옵티머스 등은 이족 보행을 채택하고 있지만, 클로이드와 이온은 각각 바퀴 6개와 2개로 수평이 동반 가능하다. 배 교수는 "바퀴 타입 로봇은 면적을 더 많이 차지한다"며 "산업현장은 라인이 좁고 턱·계단 등을 (위 아래로)넘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산업용 로봇은 이족보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연구원은 '사람의 모습'이 유리한 점이 있다"며 "로봇 손도 낮은 비용으로 고도화한 형태를 만드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AI 거울아 거울아 내 피부 어떠니? K뷰티 '반짝반짝' 혁신술

CES 빛낸 뷰티 기업
아모레퍼시픽, 거울로 피부 측정
노화 원인 분석하는 AI 패치 선봬
한국콜마는 상처 치료하면서 화장

"상처를 치료하면서 화장도 할 수 있다니, 너무 좋은데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CES 2026)'의 한국콜마 부스. 이 곳에서 스카 뷰티 디바이스(Scar Beauty Device)를 직접 사용해 본 타이 아나 스타이리스트는 "얼굴에 흉터가 많아 두꺼운 화장으로 가리기 급급했

는데, 앞으로 이 기기를 꼭 사용하고 싶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올해 CES에선 K뷰티 기업들이 가전·정보기술(IT) 업체 못지 않은 기술력을 선보였다. K뷰티 역량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뷰티테크'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다.

라스베이거스 본 행사장엔 국내 뷰티 기업 시가총액 1위인 에이피알(APR)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화장 품 제조자 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 등 K뷰티 기업들이 대규모 부스를 마련했다. 이 중 한국콜마는 'CES 2026 뷰티테크' 부문에서 최고혁신상을, 디지털 헬스 부문에서는 혁신상을 받았다. 이 중 스카 뷰티 디바이스는 상처 부위를 앱으로 촬영하면 이를 분

석해 상처에 맞는 치료제를 분사한 뒤, 피부 색상에 맞는 메이크업 파운더를 다시 한번 분사한다. CES 삼성전자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아모레퍼시픽과 협업한 피부 분석 솔루션 '스킨사이트'를 체험하는 모습. CES 최고혁신상을 받은 한국콜마의 '스카 뷰티 디바이스'.

러에는 아모레퍼시픽의 피부 분석 기술이 탑재됐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다양한 국적·인종의 관람객들이 길게 줄을 서는 등 예상보다 훨씬 반응이 좋았다"며 "거울에 부착된 카메라로 소비자의 피부의 모공, 주름 상태 등을 정밀 분석한 뒤 45만건 이상의 데이터로 맞춤형 피부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과 글로벌 화장품 ODM 기업인 코스맥스는 뷰티테크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LG생활건강은 LED 기술을 활용한 '하이퍼리쥬네이팅 아이 패치'로, 코스맥스는 스키케어·파운데이션·리퀴드립까지 뷰티 기기에서 만들 수 있는 맞춤형 디바이스 '맥스페이스(maxSpace)'로 수상했다. 노유림 기자

REALTY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koriny 승경호 부동산

비엔나 NEW 상글
\$2,795,000
방 6, 화 6.5, 4832 SqFt.
럭셔리 모던 스타일, 2026 1월 완공

맥클린 NEW 상글
\$3,299,000
방 7, 화 6.5, 5130 SqFt.
Ready for move-in!

에搦데일 버지니아 자동차 메캐너샵
차고2개, 서비스베이 높습니다. 주차공간 충분합니다.
비로 운영가능, 퍼밋 준비되어있습니다. 1백10만불.

베데스타 샌드위치 샵 판매가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버지니아 와이너리 사업 및 토지 매물
규모: 1200이이커 (약 48만m²) · 매매가: \$7,500,000
시설: 테이스팅룸, 코디지, 칭고, 와인 공장, 연못, 주차장 (10대 수용)
현황: 현재 영업 중인 유명 와이너리
자연 경관 뛰어난 프리미엄 와이너리, 관광·이벤트 운영 병행 가능

투자용 상가 건물
매매가: \$8,000,000 · 연 순수익: \$520,000 (Cap Rate 약 6.5%)
임차인: 총 7개, 모두 5년 이상 장기 계약 중
인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우량 상가. 투자자 강력 추천!

냉동·냉장 창고 매물
위치: 매릴랜드 볼티모어 · 면적: 10,000 SF
설비: 냉동·냉장고 완비 · 매매가: \$1,500,000
유통업, 식품물류, 온라인 배송업체에 적합한 최적 창고!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보험 상식 / 생명보험 가입

가입 시기 자연 보험료 몇 배 급등 주의
생명보험은 가족의 미래 지키는 에어백

얼마 전 50대 초반의 한인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고객은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 남편에게 생명보험에 들어야 한다고 권했고, 심지어 이 때문에 부부싸움 직전까지 가기도 했지만 남편이 도무지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린다며 필자에게 남편 설득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왜 그렇게 보험가입을 꺼리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귀찮기도 하고 웬지 기분이 나빠서”라는 것이었다. 남편의 대답을 바꿔 말하면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내키지 않아서’였다.

나름대로 생명보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뒤 전화를 끊었고, 이후 더 이상 연락이 없어 잊고 지내던 차에 얼마 전 갑자기 아내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남편이 생각을 바꿔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그토록 완강하

던 남편의 마음은 왜 바뀌었을까. 올해 초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본인도 가슴이 답답해 병원을 찾았다가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간단한 혈관 확장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평소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던 남편은 갑자기 약해진 자신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 보험가입을 결심하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남편이 마음을 바꾼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한 가지 문제는 시기가 많이 늦었다는 점이다. 이미 건강이 나빠지고 수술 기록까지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최소 2~3배 이상 비싸지는 것은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3년 전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훨씬 유리한 보험료로 생명보험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잠깐의 고집으로 인해 몇 배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나 많은 보험료를 감수해야 하는 부부를 보며 필자 자신도 좀 더 강력하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지 못한 점을 후회하고 있다.

근래 들어 한인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20~30대 젊은 부부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늘었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향도 점차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보험 가입을 문의해

오는 한인들의 50% 이상이 50대 이후라는 점은 다소 안타까운 현실이다.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훨씬 유리한 조건과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했을 텐데 하루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를 들어 49세 남성이 50만 달러 보험금의 보험료 환불형 기간성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30년 플랜이 가능하지만, 단 3년만 늦어도 30년 플랜은 해당되지 않고 20년 플랜만 가능하다. 불과 3년 차이로 한쪽은 79세까지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서도 보장은 72세에 끝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건강 상태와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며, 현재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과거 진료 기록까지 고려해 심사가 이뤄지므로 건강할 때, 그리고 가능한 한 일찍 가입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소비자들은 생명보험에 본인이 원

하면 언제든지 최상의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십만 수백만 달러의 보험금이 걸린 계약을 보험회사가 건강 상태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쉽게 승인할리는 없다.

2026년의 초입에선 지금, 가족의 안녕과 자신의 은퇴 계획을 위해 생명보험이라는 장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본다.

생명보험은 가족을 위한 사랑이며, 가족의 미래를 지켜주는 에어백과 같다. 생명보험은 위기 상황에서 가족의 안녕을 지켜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보험 가입자의 종대한 질병이나 수술, 신체 장애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돼 있어, 단지 가족만을 위한 플랜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주식 이야기 / 노 랜딩의 관성

3대 지수, 3년간 유례없는 동반 급등
침체 공포 넘어선 노 랜딩 구조 국면

주식시장은 지난 3년간 폭발적인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3대 지수중 가장 떨 오른 다우지수조차 3년 누적 상승률이 45%를 넘겼고, 나스닥과 S&P500은 각각 90.67%와 66.32%에 달했다. 실로 경이로운 기록이다.

이처럼 3대 지수가 나란히 이 수준을 능가하는 상승률을 기록한 사례는 지난 30년간 단 두 차례뿐이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인터넷 보급기를 맞았던 시기, 나스닥의 3년간 누적 상승률은 115%에 달했다. 이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닷컴 버블 전성기에는 나스닥의 3년 누적 상승률이 무려 220%를 기록했다. 오히려 최근 3년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승장이었다.

그런데도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이

어진 이번 랠리는 버블 붕괴 이후 25년 만에 찾아온 역사상 손에 꼽히는 기록적인 3년 연속 상승장으로 평가받는다. 통상적인 유동성 장세의 공식인 저금리 환경이 아님에도, 고금리라는 엄청난 중력을 이겨내고 GDP 4.3%의 성장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독보적이다. 과거 닷컴 버블이 투기적 광풍에의 존했다면, 이번 랠리는 AI가 창출하는

실질적 이익과 착륙 없는 성장이 빛어 낸 결과다. 비이성적 과열을 넘어 성장의 메커니즘 자체가 바뀐 새로운 궤도에 진입한 셈이다.

그렇다면 2026년 전망은 어떨까. 월스트리트 주요 투자사들의 2026년 말 S&P500 목표치는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한 뱅크오



김재환
아티스 캐피탈 대표

브아메리카는 목표치를 7100포인트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 7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불과 1.9%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가장 공격적인 전망을 제시한 오웬하이머는 8100포인트를 예측해 현

수준 대비 16%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했다. 이는 2025년 S&P500 연간 상승률 16.39%와 거의 같은 폭이다. 주요 투자사들의 평균 목표치는 7500 포인트 선에 형성돼 있다.

월스트리트가 바라보는 2026년 시장의 시선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주당순이익(EPS) 성장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와 매그니피션트 7의 독주를 넘어 AI 기술을 도입한 다른 세 터로 수익이 확산하는 ‘수익의 다변화’에 대한 낙관론이 있다. 반면 높은 주가 수익비율(PER)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과 국제 금리 변동성을 주요 변수로 꼽는 신중한 시각도 여전히 공존한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듯 AI 거품론

과 앤 캐리 트레이드 공포는 이제 강력한 내성 속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현재 장의 시선은 단순히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느냐를 넘어선 단계에 와 있다. 물가가 완화되는 국면에서도 성장의 엔진이 꺼지지 않는, 즉 착륙 없는 비행(노 랜딩·No Landing)이 하나의 경제 구조로 굳어지는 흐름이다.

결국 2026년 장을 가를 핵심은 침체 여부가 아니라 노 랜딩의 관성이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 굳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상승장은 거품 위에 세워진 불안한 탑이 아니다. 이익과 성장이라는 토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장은 지금 기대가 아니라 구조를 시험하고 있다.

① 위성된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MNT REALTY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밍
구합니다.



443-759-9798

세계사의 각주 아니라 세계사와 맞닿은 거대 내전

‘흥경래의 난’이라면 혹시 모를까, ‘태평천국의 난’에 대한 700쪽 넘는 책을 한달음에 읽어 제치리라고는 생각 못 했다. 고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고 역사책들 속에 끼어있는 짧은 기술 이상으로는 크게 관심도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책을 펼치자마자 마치 ‘왕좌의 게임’을 보는 듯 그 생생한 내란의 혼돈 속에 빠져들고 말았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 중국사 교수인 저자는 이 책이 종합적인 역사서가 아니라고 말한다. 대신 “난세에 책임있는 개인들의 경험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의 사건들을 깨뚫어보고자 했다”는 것이다. 탁월한 작가이기도 한 저자는 심리 드라마를 보는 듯한 주인공들의 내면 묘사로 흔히 “각주로만 취급되던 세계사적 사건”을 거대한 역사서사로 재탄생시켰다.

우리가 아는 태평천국의 난 속 주요 등장인물은 흥수전과 중국번이다. 이 책에도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상식과 조금 다르다. 책은 1852년 흥종에서 흥인간이라는 사람이 스웨덴인 선교사에게 객가(중원에서 남하한 한족 후예) 출신 선지자 얘기를 들려주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흥인간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자 예수의 동생”인 흥수전의 사촌동생으로 청군에 쫓겨 흥종까지 오게 됐다.

1년 뒤 난징이 함락되고 서구의 시선도 따라 긴박해진다. 거기에는 ‘뉴욕데일리리트리뷴’의 런던 통신원 카를 마르크스도 있었다. 그는 “중국 혁명은 과부하 걸린 산업 시스템의 폭발을 야기하고, 이는 유럽 대륙의 정치적 혁명으로

19세기 중국 뒤흔든 ‘태평천국’ 인물 중심 역사 서사로 재조명

“예수 동생” 자처한 흥수전 대신

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 결국은 틀린 예언을 피력했다. 저자는 그밖에 미국과 유럽 언론들의 논평을 비교함으로써 중국내전이 이미 “유럽과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이어지는 실들에 얹혀있었

음”을 입증한다.

선교사 보조로

머물던 흥인간은

1856년 난징으로

가서 태평

천국에 합류

한다. 당시

천왕 흥수

전은 황실

정원 이화

원에 파묻

혀 있던 청

나라 황제만

큼이나, 자신

의 화려한 궁

궐 안에서 세상

과 멀어져 있었다.



한국의 가을
스티븐 플랫 지음
임태홍 옮김
글향아리

2인자 중 하나인 동왕이 난징을 자신의 영토인 양 다스리다 쿠데타로 죽었다. 참수된 머리는 담에 걸렸고 그의 가족과 추종자 6000여 명이 학살됐다.

이러한 때에 믿을 수 있는 사촌을 재회한 것은 흥수전에게 신의 계시였다. 그는 흥인간을 주위의 사법 속에서 간왕에 봉한다. 방패 간(干)자를 쓴, 충직한 군사 참모이자 국가 질서의 수호

자라는 의미였다.

흥인간은 실
제로 “중
국 역

사상 최초의 진정한 세계적 혁명”을 내놓고 태평천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전통적인 ‘중화’와 ‘조공’ 개념을 과거의 유물로 폐기하고, 미국과 영국의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내세운다. 중국도 세계 산업경제에 뛰어들어야 강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통 인프라(물류 이동)와 신문(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 다른 주인공인 중국번은 6장에 가서야 등장한다. 알다시피 태평천국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막는 역할이다. 모친상을 치르기 위해 후난성에 내

려와 있다 열렬결에 황제의 명을 받고 반군 진압 민병대의 종사령관이 된 중국번 이야기는 익히 아는 등장인물인지라 그리 새롭지 않다. 다만 중국번이 처음엔 이홍장을 (단련을 위해 선지 경계를 해선지 몰라도) 자극히 훌대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다른 유능한 부하들을 물리치고 ‘고시(과거) 출신 후배’인 그를 2인자로 중용했다는 분석이 흥미롭다.

두 주인공의 대결에 서구가 개입한다. 이 책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은 중립 표방과는 달리 각각의 이익에 따라 출타기를 하며 사태를 악화시킨다. 특히 영국은 한쪽에서 청군을 공격할 때 다른 쪽에서는 태평천국군에 포격을 가하는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다.

그러다 1861년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에 개입하는 대신 청나라 정부를 돋는 쪽을 택한다. 결국 시신들로 양쯔강의 물길이 여러 번 바뀌었다던 내전은 끝났다. 그 과정이 내내 긴장감 넘치는 필치로 그려진다. 그러면서 수천만 중국 백성들의 운명이 서구의 자국 우선주의, 청나라 학자 관료들의 보신주의, 반란군 지도자들의 혼란스러운 신념에 의해 어떻게 바뀌고 움직였는지 차분하지만 통렬한 시각으로 보여 준다.

이홍범 작가



원쪽은 후난군 총지휘관 중국번. 오른쪽은 안후이군 지휘관 이홍장의 1879년 모습. 중국번은 이홍장을 처음에는 훌대하다 2인자로 중용했다.

[사진 글향아리]

축구도 구단 경영도 세계챔피언의 비결

음바페·비니시우스·벨링엄·호드리구·발베드레…, 말만 들어도 ‘세계대표급’ 축구선수들이다. 이들이 소속된 스페인 라리가의 축구클럽 레알 마드리드는 유럽은 물론 전 세계 축구를 호령하고 있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는 단지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다. 경기뿐 아니라 구단 경영에서도 세계챔피언으로 꼽힌다. 거의 모든 빅클럽이 적자에 허덕였던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레알 마드리드는 3년 연속 순수익을 기록했다.

『레알 마드리드 레볼루션』은 이 구단이 어떻게 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스포츠 모델의 본보기가 됐는지에 대한 비결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다.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지냈던 지은이 스티븐 G 맨디스는 연구자로는 처음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허가를 받아 이 구단의 비즈니스 현장을 취재

하고 혁신의 핵심 요인을 분석해 책으로 펴냈다.

1902년 창단한 레알 마드리드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팀이다.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통산 열다섯 번 우승을 차지했다. 2013~2014시즌 이후로만 따지면 무려 여섯 번이나 빅이어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스페인 라리가에선 서른여섯 번이나 정상을 차지했다.

선수단 몸값으로만 따지면 레알 마드리드를 앞서는 빅클럽들이 많다. 레알 마드리드는 맨체스터시티, 파리생제르맹(PSG), 웨일스 등 오일머니로 무장한 국가가 후원하는 기관이나 거대 사모펀드, 억만장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빅클럽들에 비해 머니게임에서 열세인 게 사실이다.

레알 마드리드의 성공 비결을 알려면 먼저 ‘레알 마드리드 방식’이라는 것

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지은이는 강조한다. 맨디스는 『레알 마드리드 웨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약 9만4000명의 소시오라 불리는 클럽 회원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소시오 회원들이 4년마다 선출하는 회장과 이사회를 비롯한 구단 경영진은 클럽이 전 세계 6억 명의 마드리디스타 팬덤을 가진 레알 마드리드 커뮤니티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클럽 정신에 입각해 정정당당한 성공을 추구한다는 문화와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축구경영을 지향한다.

2018년 당시 33세였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재계약 협상을 마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매시 주준의 연봉을 원한다며 또다시 주급 인상을 요구하자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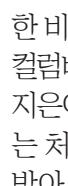
단은 호날두를 유벤투스에 매각해 버렸다. 엄격한 조직문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스포츠 모델, 재정적 책임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콘텐트와 엔터테인먼트로 연계한 전략도 레알 마드리드 성공의 비결 중 하나다. 자체 OTT 플랫폼인 RM플레이를 통해 차별화된 콘텐트를 제공함으로써 충성 팬들을 더욱 양산했다.

이 책에는 이 밖에도 레알 마드리드를 경영의 귀재로 등극하게 만든 다양 한 요소와 세계 축구의 생생한 현장, 더욱 치열해져 가는 스포츠 산업에 대한 알짜 정보들이 가득 차 있다. 레알 마드리드를 따라가려는 구단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경영’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한경환 자유기고자

레알 마드리드 레볼루션
스티븐 G 맨디스 지음
김인수 옮김
세이코리아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융자 회사!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서비스, 수십년의 경험

- 일반 융자
- 정부 융자
- 군인 융자
- 재융자
- 캐쉬 아웃 융자

- 최소 다운페이
- 최소 크레딧 점수
-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
- Bank Statement 프로그램
- 투자자 대출 프로그램

- Direct Lender
- Competitive Rates
- Low Closing Costs
- Same Day Pre-approval
- 14 Days Closing Possible



Bryan Park
703-727-9730
bpark@umnloan.com / NMLS # 842353



Daniel Myungchul Kim
703-283-4828
mckim@umnloan.com / NMLS # 1001517



Joon Joshua Han
703-268-3954
jhan@umnloan.com / NMLS # 1622782



Chris Park
703-899-8660
cpark@umnloan.com / NMLS # 246985



Youngjean Lee
703-596-5409
yjlee@umnloan.com / NMLS # 1698083



Shane Lee
703-899-8876
slee@umnloan.com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30096

‘우리가 알던 삼성’이 돌아왔다

SAMSUNG 4분기 매출·이익 신기록

국내 기업 최초로 ‘영업익 20조’
메모리 날고, 비메모리 적자 줄여
“이재용 리더십 회복 효과” 평가
증권가 “올해 영업익 100조 가능”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반도체 업황 반등이라는 외부 환경에 더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현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고객사 수주와 협력 확대에 직접 나선 점이 실적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8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 90조원, 영업이익 20조원을 넘은 건 국내 기업 처음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7%, 영업이익은 208.2% 증가했다. 반도체 수퍼사이클 정점이었던 2018년 3분기 이후 약 7년 만에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이 회장의 현장 중심 경영과 글로벌 행보를 꼽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내 첨단 복합 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인 NRD-K 클린룸 시설을 직접 점검하는 등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여 왔다. 엔비디아·AMD·브로드컴 등 주요 고객사와 협력을 확대하고 수주를 논의하는 데에도 직접 나서며 메모리·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다.

구체적인 사업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16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산한다. 전체 영업이익의 80%에 가까운 규모다. 수익성 개선도 뚜렷하다. DS부문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초 한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4분기에는 38% 안팎까지 상승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있다. 공급 부족으로 범용DRAM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오르고, 주요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이 확대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시장조사업체들은 지난해 4분기 메모리 가격이 전 분기 대비 최대 50% 가량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HBM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주요 업체들이 구형 DRAM 생산능력을 줄이면서 범용 메모리 가격이 동반 상승했고, 이 과정에서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평가한다. 수익성이 높은 HBM3E(5세대) 제품의 고객사 확대도 실적 회복에 힘을 보탰다.

특히 올해 메모리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HBM4(6세대)에서도 삼

성전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주요 고객사를 상대로 한 품질 테스트와 인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메모리 부문의 적자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와 시스템LSI 사업부는 지난해 상반기 2조원대 영업손실을 냈지만, 하반기에는 적자를 8000억원 미만으로 줄였을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한다.

이에 따라 실적 전망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수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한 데다 메모리 가격 강세와 HBM 출하 확대가 이어지면서, 증권가 일각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승연 D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14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DRAM 업황은 제한적인 공급과 견조한 수요 강세가 맞물리며 호황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영우 기자

LG전자, 이제는 로봇회사…“내년부터 가정용 로봇사업 스타트”

류재철 신임 CEO 첫 경영 구상

류재철(사진)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취임 후 첫 경영 구상으로 로봇사업의 본격화를 제시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가전쇼(CES 2026)’에서 류 사장은 “성장과 변화의 바탕을 이어받은 신임 CEO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강한 실행력으로



수익성 기반의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 사장은 올해 첫 LG전자 신임대표에 올랐다.

류 사장은 새로운 사업 전략 키워드로 ▶근원적 경쟁력 확보 ▶고성과(High Performance) 포트폴리오 전환 ▶AX(인공지능 전환)를 꼽았다. 그는 “인공지능(AI)으로 과거에 한 번도 경험 못 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업(業)의 본질인 ‘품질·

비용·납기’ 경쟁력을 강화해 빠르게 추격하는 경쟁업체들을 이길 수 있는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 해법으로는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전장(자동차 전자장비)과 냉·난방공조(HVAC)를 핵심축으로 하는 기업간 사업(B2B)과 구독서비스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 분야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1년 29% 수준에서 지난해 하반기 45%까지 늘어났다.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한층 거세진 TV 분야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경쟁사 부스를 둘러본 소감에 대해 류 사장은 “(LG전자에) 위기기보다는 기회가 더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프리미엄 LCD TV인 마이크로 RGB TV 제품군을 처음 공개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뿐 아니라 LCD TV에서도 기술력을 앞세워 프리미엄 TV 시장의 주도권을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미래를 준비할 핵심 비전으로는 로

봇 사업을 내세웠다. 류 CEO는 “LG전자의 AI는 집에서 출발한다”며 “내년부터는 가정용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CES에서 기사 노동을 대신할 ‘클로이드’를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류 CEO는 “아직 목표하는 수준보다 동작 속도가 많이 느리지만 몇 달 안에 사람과 유사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쯤이면 실험실에서 벗어나 실제 가정에서 성능을 증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14만 전자’ 연재 팔아야 하나… 전문가 “과열 경계하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56% 내린 13만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8거래일 만의 하락이다. 장중 한때는 14만45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전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호실적을 발표하며 매수세가 몰렸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이를 악용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

원은 “이미 일부에서 영업이익 20조원 전망이 나왔던 만큼 수급 싸움이 활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 역시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전날보다 1.48% 내린 차 거래를 시작했지만 오전 한때 6.2% 오른 78만 8000원까지 치솟았다. ‘78만 닉스’를 뚫은 건 이 날이 처음이다. 이후 차익실

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 폭을 내린 75만 6000원(1.89% 상승)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새해 들어서만 2일 67만원, 5일 69만원, 6일 72만원, 7일 74만원 고지를 밟으며 하루에 2~3만원씩 뛰었다.

해외 투자은행(IB)과 증권사는 대형 반도체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앞다퉈 올려잡고 있다. 지난 7일 맥쿼리는 “메

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각각 24만원, 112만원으로 높여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8일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37% 올린 96만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가 언제까지 오르기만 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코스피 5000을 공약한 만큼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내릴 수도 없는 속사정도 있다”고 전했다.

정도 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를 집중 투자해온 개인투자자 이모(35)씨는 결국 지난 6일 보유한 주식의 거의 전량을 매도했다. 지난해 ‘55만 닉스’에 올라탄 이씨는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 반등하길래 이제는 마음고생을 안 하고 싶어서 전부 팔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또 거칠었이 올라가는 주가를 보고 “조정 국면에 다시 단타로 들어가야 하나 혼란스럽다”고 했다.

장서윤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NVAR Top Producer
Zillow Premier Agent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클립턴 싱글홈

\$1.5M

방5/화4.5/차고3, 1.05 에어컨
새 지붕, 새 HVAC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화2.5/차고1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화2.2, 2 Assigned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편리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 개인상해 보상청구
- ◎ Chapter 7: 개인 파산
-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 비지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 Chris Shin
Esq.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양육비 26% 늘어 19만원
(월평균)

집사야... 괜찮아?

치료비 두배 뛰어 146만원

올해 또 인상, 일상 된 '펫플레이션'

포메라니안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강모(63)씨는 매월 사료비와 간식비, 목욕비 등으로 10만원 이상을 쓴다. 동물 병원을 찾는 달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수십만원 추가된다. 강씨는 “올해 2월부터는 늘 먹이던 사료값이 오른다고 해 몇 달치 미리 사뒀다”며 “노견이라 아픈 곳이 많아지는데 진료비도 오를 것 같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 ‘펫플레이션(펫+인플레이션)’이 일상화하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용품 가격, 반려동물 관리비 상승률은 각각 2.9%, 2.5%로 전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1%)을 웃돌았다. 2020년을 기점으로 보면 지난해까지 전체 물가가 16.6% 상승할 때 반려동물용품 가격은 20.2%, 반려동물 관리비는 13% 올랐다.

반려견·반려묘를 납들 수준으로만 키우려고 해도 이제 월 20만원은 든다. KB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비는 19만4000원으로 2023년보다 26%(4만원) 증가했다. 조



사 대상인 1000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비로 월 25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가구의 비중은 20.6%로 2023년(15.6%)보다 5%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5만원 이하 지출 비중은 23.6%에서 18.8%로 4.8%포인트 줄었다.

반려동물 양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식비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양육비 지출의

57.6%가 사료·간식·건강보조식품 등 식비 명목이었다. 치료비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대신 한 번에 큰 부담을 준다. 지난해 반려가구는 최근 2년간 반려동물 치료비로 연평균 146만3000원을 썼다고 답했다. 2023년 응답 때(78만7000원)의 2배 수준이다.

올해도 펫플레이션은 심화할 전망이다. 연초부터 사료값, 반려동물용품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펫푸드 업체 퓨리나는 원가 상승을 이유로 다음 달 2일부터 반려견·반려묘 사료 가격을 10~27% 가량 인상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이탈리아산 반려동물식품을 공식 수입하는 몬지코리아도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부터 건식 사료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과 기타 원부자

재·물류비 등 물가가 올라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과 함께다. 또 반려묘 배변용 모래를 판매하는 닥터펠리스는 오는 12일부터 주요 제품 6종의 가격을 3~17% 가량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진료비도 마찬가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동물병원 395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료비 20개 항목 중 9개 항목의 가격이 전년 보다 올랐다. 방사선 검사비 8.3%, 상담료 6.5%, 초진 진찰료 2.2% 등이다. 서울대 동물병원은 내부적으로 올해 진료비 인상을 적극 검토 중이다.

반려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정부도 관련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공익형 표준수 가제를 도입해, 정부가 지정한 공공동물병원·상생동물병원이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했다. 흥기록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지난해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100개 항목에 대한 진료절차 표준화 작업을 마무리했고, 앞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펫보험이 활성화한다면 진료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연예인도 맞는다길래... 불법인지 몰랐죠”

“병원 갈 시간이 없었는데 마침 지인이 소개해줘 제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았어요. 하지만 그땐 불법인지 몰랐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모(32)씨는 얼마 전 거듭된 야근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출장 링거’를 맞았다. 회사 동료가 친분이 있는 의사라고 소개를 해줬고 “연예인들도 종종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지갑을 열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출장 서비스를 받은 김씨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주사이모’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병원 밖 의료행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대리 처방, 불법 의약품 유통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수

‘주사이모’ 논란 부른 병원 밖 의료행위
SNS 등 통해 일반인에게도 확산
왕진·재택의료 모호한 규정 틈타
유사의료기관 불법시술 반복돼
의료계 “허용·금지 기준 명확해야”

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이에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런 병원 밖 의료행위는 단지 연예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도 암암리에 퍼져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



음에도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은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임현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실제로 현장에선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돼 온 게 현실”이라며 “설령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단속의 실효성도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사이모’ 파문 이후 합법성 논란은 반영구회장이나 문신, 안마 등 유사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반영구화장의 경우 종사자만 60만 명, 시술 경험자도 17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대중화된 지 오래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격이 없는 사람의 시술은 명백히 불법임에도 단속은 드물고 SNS에는 관련 정보나 이용 후일담 등 게시물이 수십만 건이나 노출돼 있는 상태다.

10년째 반영구 시술을 해온 허모(45)씨는 “손님들은 불법이란 위험성보다 편의성을 먼저 생각한다”며 “병원에 가기엔 번거로운 상황에서 ‘다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의료가 아니라 뷰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불법이 일상화된 채 합법과 불법의 경계마저 모호해진 ‘의료 회색지대’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주변에선 “단속만으로 한계가 뚜렷하다”는 우려와 함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관련법을 정비해 허용과 금지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택의료 등 합법적인 병원 밖 의료 행위와 무자격 시술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오동호 서울 중랑구의사회장은 “원칙과 예외의 경계가 불분명한 채 방치될수록 편의를

앞세운 병원 밖 의료행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료법과 관련 규정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과 의료 소외지역 주민 등 재택의료가 합법화된 환자들의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실제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의 병원 밖 재택의료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344곳으로 확대했다. 오 회장은 “도서 지역이나 외딴 시골 주민들에게도 재택의료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합법적인 재택의료의 효용성을 높이려면 재택의료의 기준과 책임 구조부터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공백과 모호성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동찬 의료 전문 변호사는 “왕진과 재택의료는 의료법상 허용돼 있지만 범위 규정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이 틈을 타서 유사의료기관의 불법 시술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동욱 기자

Galaxy Realty

GALAXY REALTY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일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은 문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택 매매 및 렌트	주차 매매		
	주차	매매	렌트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COMING SOON	\$1.25M	로리가 Hampton of McLean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한 에이전트로 소문이 나서 본인 친도 빌려 달라고 연락 옴. 2/6 마켓에 올라올 예정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UNDER CONTRACT	\$689,000	손님이 꼭 원하는 지역의 치고 1 타운 홈, 경쟁률 높고 득템. Buyer So Happy 12/22 세일문트 예정
8110 Squirrel Run Rd, Springfield, VA	SOLD	\$625,000	셀러가 원하는 조건으로 펌 45일 무료 Rent Back은 보너스. 로리는 피는 것도 잘 함. Seller So Happy 11/24 세일문트 원료
1477 Hampton Hill Cir, McLean, VA	SOLD	\$1.32M	복수 오피스텔 경쟁사가 리스팅 가격보다 2만불 더 받음. Seller So Happy 10/24 세일문트 원료
6758 Brook Run Dr, Falls Church, VA	SOLD	\$775,000	침 시자마자 주차원 장기 렌트 원료 10/21 세일문트 원료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사업체
매매

밸리샵(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업화하면서 투자용 집, 두세 치니 짚 실 때 디자인 편의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주차
매매

죽어라 뛰는데 왜… ‘가슴 뛰지’ 않을까

‘달리기만 세계 최고’ 데이터로 확인된 홍명보호 현실

축구 R&D센터 ‘하이퍼포먼스팀’
“질주 좋지만, 킬패스·돌파 등 약점”
10대 강국과 비교한 분석자료 제공
축구협 연구성과, FIFA 모범사례로

찌그러진 도형, 한국 축구의 특징이
오롯이 담긴 그래픽이다. 2022년 카
타르 월드컵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
계 10대 축구 강국과 한국 축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10대 강국의 데
이터 평균값을 정구각형으로 표준
화해 시각화해보니 한국 축구의 실
체가 직관적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강국들보다 훨씬 더 숨 가
쁘게 달렸지만 기술적 지표에
서는 평균치를 크게 밟았다. 공 받기 위한
움직임, 드리블 전진 등 여러분
아에서 그랬다. 파울루 벤투 감독
체제에서 ‘빌드업 축구’로 16강 결
실을 맺었음에도 데이터에 투영된
한국 축구의 단면은 여전히 일그러
져 있었던 셈이다.

이 자료를 만든 이는 대한축구협
회 전력강화팀의 주원우 연구원이
다. 부산 기장고에서 축구 선수의 꿈
을 키우다 스포츠 데이터 연구원으
로 길을 튼 그는 영국 리버풀 존무
어스 대학 박사 과정 당시 맨체스
터 유나이티드의 데이터 분
석 프로젝트를 수행한 전문
가다. 주 연구원은 “카타르 월
드컵 그래픽은 팀을 평가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특징을 찾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홍명보 감독 취
임 직후에도 지난 월드컵
과 아시안컵의 데이터를
분석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에는 월드컵 조 추첨을 앞두고 베이
스캠프 후보자 시뮬레이션을 준비
하고, 조 추첨 이후 고지대 및 온도
적응 방안을 정리해 제시하는 등 보
이지 않는 곳에서 대표팀을 지원하
고 있다.

하지만 성인 대표팀 지원은 그의
본업 중 일부다. 주 연구원은 “홍명
보호에는 더 세밀하게 데이터를 들
여다보는 분석관이 따로 있다”며

“유소년 축구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나의 주된 업무”라고 설명
했다. 그가 몸담은 전력강화팀은 한국
축구의 장기 비전을 세우는 ‘R&D 센

터’이자 혁신 과제를 실천
하는 ‘특공대’다. 2022년 TF팀
으로 출발해 정식 팀이 된 지 3
년이 채 안 됐지만 성과는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2023년 12월 조직된
‘하이퍼포먼스그룹’이다. 주 연구원 같
은 박사급 전문가와 코칭스태프, 피지

컬 트레이너, 경기 분석관 등을 하나로
묶어 전문 영역별 칸막이를 허물었다.
지난해 45명 규모로 커진 이 그룹은 현
장 경험과 데이터를 결합해 한국 축구
혁신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도출
했다. ‘압박 강도가 높은 실전형 훈련’,
‘단조로운 U자형 빌드업 패턴을 위한
일대일 능력 향상’, ‘빠른 템포 속 정확

1 지난해 12월 열린
FIFA 워크숍에서
발표하는 주원우
연구원. 2 엘리트
유소년팀 지도자들
이 지난해 6월 천안
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토
의하고 있다. [사진 KFA]



한 판단’ 등은 모두 찌그러진 도
형을 제대로 펴기 위한 정밀한 방
향 설정이다.

전력강화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은 현장과의 접점인 유소년 팀 지도
자 워크숍이다. 김지훈 전력강화팀
장은 “협회가 방향을 설정하는 게
10이라면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게 90”이라며 “현장과 함께 움직이
지 않으면 한국 축구는 바뀌지 않는
다”고 단언했다. FC서울 유스팀인
오산고 윤시후 감독은 “벌써 4년째
워크숍에 참여하며 최신 흐름을 배
우고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며 “현
장의 고충을 협회에 전하고 이를 팀
훈련에 적용하려는 지도자들이 많
아졌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
정받고 있다. FIFA로부터 모범 사
례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았고, 지
난해에는 중국 축구협회가 지도자
를 파견해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
기도 했다.

김 팀장은 “올해는 기존 워크숍의
내실을 다지면서 전국대회를 통해
‘경기 기반 훈련’, ‘개인 개발 계획’
등의 과제를 현장에 확산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s)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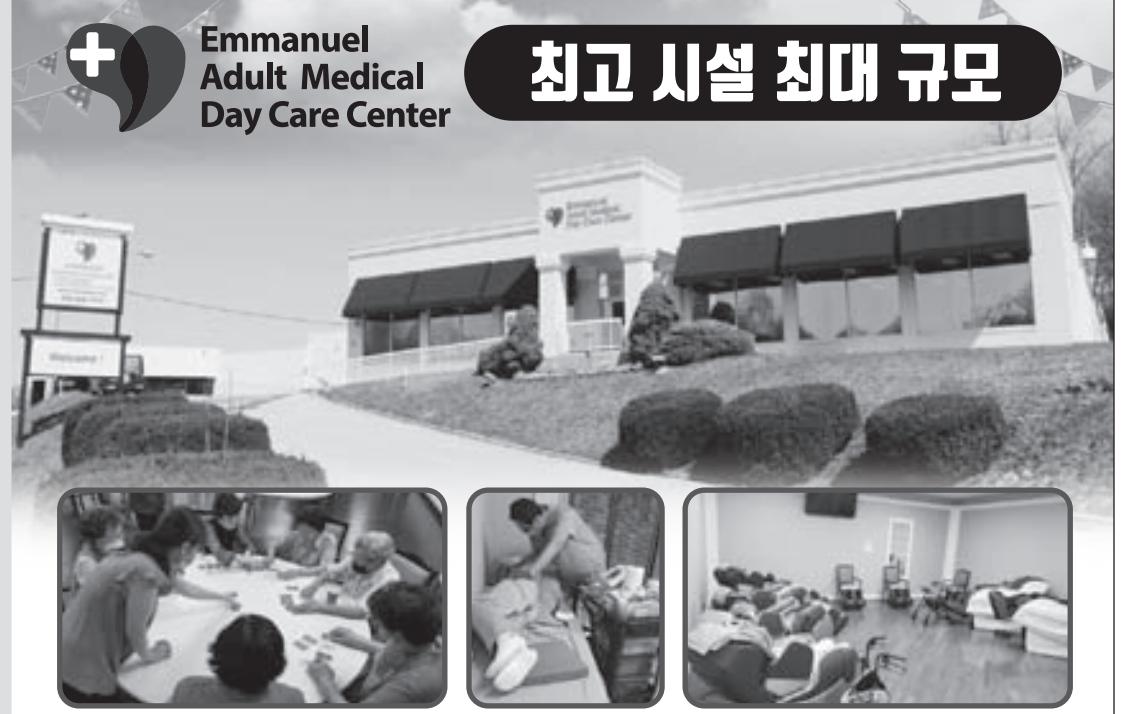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일등부동산

뉴스나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수업료: \$350 (교재비: \$100) 시작일 주중입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학격후 10주 실전교육 • 기본 컴퓨터 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파란만 모시면 100% 합격보장!!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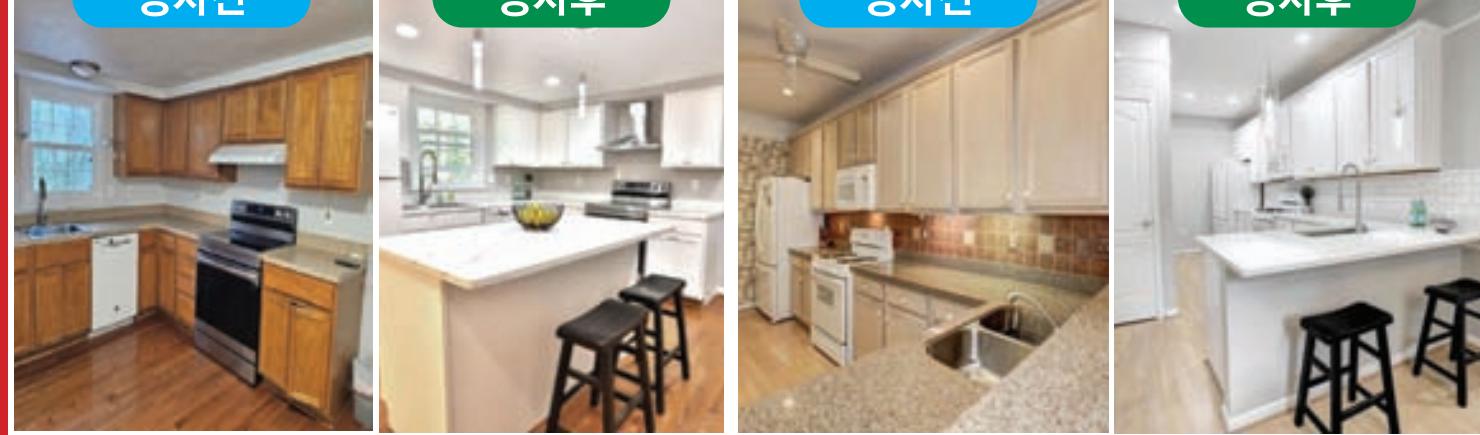
“뉴스나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나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650,000
- 공사비(후불): \$45,000
- 수리 후 가격: \$750,000

수리 후 \$50,000 이상 이익

*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370,000 → \$388,000
\$18,000불 더 받고 팔림

버지니아



\$85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치고 2
넓고, 아주 예쁘게 잘 꾸며진 집



\$77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3
좋은 환경에 예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정원



\$785,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치고 1
새로 꾸민 부엌과 마루바닥, 편리한 교통



\$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치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꾸어진 집, 벽돌, 마루바닥



\$880,000
센터빌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치고 2
아주 잘 꾸며진 이쁜 집, 이쁜 뒷뜰, 수영장



\$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치고 2
우드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



\$1,18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치고 2
코스트코 근처, 벽돌집, 마루바닥, 환경좋은 고급 집



\$1,350,000
비엔나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치고 2
편리한 교통에 멋진 고급 집, 최근 몇 년 사이에 업그레이드



\$1,6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치고 2
1년된 새집, 고급스럽게 잘 꾸며진 집, 좋은 학군



\$1,875,000
비엔나 싱글홈

방 6, 화장실 6, 치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1,98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5+1, 치고 2
새집, 우드슨 학군, 모던하게 아주 예쁘게 잘 지은 집



\$2,100,000
맥클린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치고 2
아주 크고 고급스러운 집, 넓고 평평한 정원과 이쁜 뒷뜰, 수영장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625,000
Elkridge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치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바닥, 1층에 안방



\$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치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750,000
실버스트링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치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 홈, 넓고 잘 꾸며짐



\$1,275,000
N. Potomac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치고 2
아주 예쁘고 밝은 고급 집



\$1,425,000
NW 싱글홈

방 3, 화장실 2
체비체이스와 경제지역, 편리한 교통, 고급 동네



\$2,500,000
NW 싱글홈

아주 크고 고급스럽게 잘 꾸민 집, 고급 동네



\$649,000
SE 타운홈

방 5, 화장실 3+1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뉴스나부동산

VA 703-496-4989
MD 410-618-4989

8230 Leesburg Pike, Suite 650,
Tysons Corner, VA 22182
3444 Ellicott Center Dr. #105,
Ellicott City, MD 21043



내집 가격이 궁금하다?
캘리 사진으로 만들어진
집김정 리포트를 신청하세요.
1-800-406-4989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MERCY
CHIROPRACTIC

26년 임상경험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전문의 박종현

한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밀보 영 긴밀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오래되고 잊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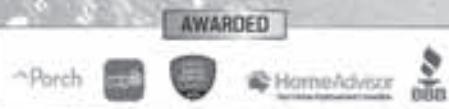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1월

구

인

광

고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펼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베네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의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성공 비지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会社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금매

Korean BBQ
& Hot Pot
케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순익보장 데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전문기·정선판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 & 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 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메릴랜드 봉고메리몰 시계 및 쥬얼리샵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督办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학벌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
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패니
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
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 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 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세탁/이미용/기타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강아지 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 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슬레이션된
쿨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업무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유경험자, 파티임
443-262-1813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6am - 2pm) \$18/hr + tips
703-785-8763

어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 컨디션 \$6,500
703-909-9377 / 703-560-6424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
리겠습니다.
703-869-5919

PG 카운터 리퀴스토어 라리스틱 하실 분
2~9pm 일하실 분 구함(금, 토 포함)
301-336-2500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식당에서 흘 서버 하실
분 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 가능한 텔리 매니저 구합니다.
DCSW(월~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파리바게뜨 베네스다에서 경험 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속령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리 흥.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지하 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포 \$1,200
703-231-5572

엘리컷시티 롯데 5분거리, 밝고 깨끗한 싱글
하우스 워크 아웃 지하 렌트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 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방2, 욕실, 취사 가능
443-630-2322

조용/교통 편리한 위치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 흥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경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 흥 2층 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 분 \$700
240-393-3615 (문자 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 흥 방 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 흥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사업체 매매

DC 백안관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 5일 Deli/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7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30,000
리퀴리아션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DJ Lee 703-303-8003

1. 치킨 프랜차이즈 95만불, 주매상 3만
2. 일식집, GMU 근처 20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03-303-8003

1.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3.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MD
4. 쿵후터, Bakery 등 리스팅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텔리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 (DC) \$150K
DC 내 위치, 장사 잘되는 곳이나 익스 희망,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WBS Processing 과 Tech support 부서에
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
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 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어우대

문의: 571-389-4415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ishin.esq@gmail.com

리셉션 담당 (이중언어 필수) 모집합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 가능(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러브핸드 헴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 혜택: 건강보험 / IRA 혜택 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 있으신 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함

- 경력자 우대

- 오후 근무 가능하신 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력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티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 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센터빌, 챈들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 담당

월/화/목/금, 영어 가능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중앙일보

이어서 첨부 govaepic@gmail.com
▶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 tysi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RT-1 콘티코 근처 편의점에서 신원 확실한
남자 경력자 구함. 문자 연락 요망.
443-618-7141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게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터
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쉬어 풀타임(유/무 경력자)
제빵사 풀타임(유경력자)
703-625-8525

DC-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6am-2pm) \$18/hr+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콘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
서 함께 일하실 웨이터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 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멀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토리점 구인
푸드코트 캐셔,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ji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우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역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파트타임

▶ 571-991-4172

이미용

매너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비버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 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카운터 보실 분
풀/파트타임 얼터레이션 하실 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샵에서 바느질 하실 분
모십니다.
3일 파타임 가능하신 분
703-328-3064

자동차/정비/바디샵

풀스쳐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캐닉
유 경력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고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캐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 구인

맥클린 한국 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분
571-235-8997/ 703-505-5760

가사 도우실 분을 찾습니다.
음식 깔끔하게 하시는 분, 세탁, 집안 정리
12:30-7:30 주 5일 주급 \$750
경험자 우대, 가족처럼 오래 일하실 분
맥클린 VA
703-887-1037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애난데일 타운홈 렌트 \$3,400
방3, 화3.5, 최신식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
이드된 집, 화려하게 잘 꾸며 놓은 부엌
과 화장실, 집 전체 나무 마루, 넓은 데,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모델 하우스 보다 더 예쁜 집, 교통 편리, 즉시 입주
▶ 703-477-3114

1. 매나사스 타운 \$3,400
(2025년 12월 새집) 2,700 sq, 방4, 화3.5,
로프트(오피스), 2/4 층 데크, 카고 2,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234/66/GMU 근처, 이노베이션
센터 쇼핑몰 인근, 교통 편리, 센터빌 10마일
2. 브리스토 타운 \$3,200

방4, 화3.5, 카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스
타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군, 234/
Sudly manor, near Costco

▶ 571-239-6054

1. 게이더스 버그 타운홈 \$3,300
방4, 화장실 2
2. 제狎 타운홈 \$2,800 방3, 화장실 3
3. 엘리كت시티 타운홈 \$2,750
방3, 화장실 2/2
4. 파사데나 타운홈 \$2,600
방3, 화장실 2/2
5. 콜롬비아 싱글홈(반지하) \$1,500
방2, 화장실 2
▶ 301-318-4242 / 443-668-0453

스프링필드 타운홈 렌트 \$3,000
방2, 화2.2,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편리
▶ 703-919-0472

1. 센터빌 타운홈 렌트 \$3,300
방3,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2. 센터빌 타운홈 렌트 \$3,500
방4,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3. 패어嬖스 타운홈 렌트 \$3,600
방3, 화3.5, 주차 2, 2월초 입주
▶ 703-863-0321

매나사스 기차역 가까운 타운홈 \$2,900
방3, 화2.5, 카고 2, 앤드 유닛
▶ 703-489-6926

페어嬖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3.5 \$3,200 or 일부 방3 화2.5
\$2,200
470-485-1875

센터빌 H마트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350 (유틸리티 별도)
방3, 화장실 1.5, 뉴 리모델링, 개/고양이 가능
12월 11일 입주, 단기 렌트도 가능
571-345-6667

콘도 렌트

애난데일 H마트 옆 콘도 렌트
방2, 화1, 엘리베이터, 유포 \$2,000
(전기 별도) 즉시 입주 가능
703-350-1986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한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카고 2, 이노베이션 메트로 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
고 교통요지
▶ 571-239-6054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2층 옥실 딸린 큰방 렌트합니다.
571-970-8048

로튼 싱글하우스 베이스먼트 워크아웃 전체
렌트, 방2/거실/욕실/주방/세탁실
초중고 걸어서 통학 가능

▶ 703-774-4939

애난데일 시루앞 방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 703-973-8123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하우스 마스터 배드룸
또는 작은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
고 조용한 월층방,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
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페어嬖스 방 렌트 또는 하숙 하실 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703-388-8518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월층(아랫층
과 원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화장실, 리빙룸, 큰 데크, 큰 창고, 카고 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5번 3분 거리
▶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페어嬖스 방 렌트 또는 하숙 하실 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703-388-8518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 다수,
RT29/66/28/286
▶ 571-239-6054

부동산 매매

버크 싱글홈 \$975,000
방4, 화3.5, 카고 2, 집 전체 리모델링, 새 지
붕, 새 HVAC 시스템, 새 창문, 새 DECK,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모든 화장실 업데이트
▶ 703-813-8949

센터빌 타운하우스 \$510,000
방3, 화2.5,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Stainless Steel Appliances, 새 패인트, 집
전체 리모델링, 교통 편리
▶ 703-813-8949

1.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카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 410-417-7080

메릴랜드 램행 싱글홈 \$700,000
1991년, 방4, 화3.5, 카고 2, 지하을수리,
업그레이드, 넓게 확장한 거실
▶ 703-863-0321 / 301-399-0140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홈 \$749,900
방3, 화3.5, 카고 2, 교통 편리
▶ 703-489-6926

우드브리지 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페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in1822@gmail.com

571-723-0446

OK 택시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 공항, 장거리

카지노 모두

24시간 가능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일보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 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 703-622-0312

센터빌타운하우스 \$499,900
방2, 화3.5, 1,740sqft, 지하full bath, 워크
아웃, 브래더/28,66,29 교통요지, 2017 리
모델링,
▶ 517-239-6054

1. 센터빌타운홈 \$600,000
방3, 화2.5, 카고 1
2. 센터빌타운하우스 \$700,000
방3, 화2.5, 카고 2
3. 비엔나콘도 \$325,000 방1, 화1
▶ 703-919-0472

챈들리 금매 타운하우스 \$300,000
방2, 화1, 아담한 뒷마당
▶ 703-231-5572

알디 싱글하우스 \$869,000
방4, 화2.5, 카고 2, 전체마루, 굿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 517-239-6054

엘리컷 시티싱글홈 \$749,000
방4, 화3.5, 카고 2
▶ 301-318-4242/443-668-0453

1.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카고 2, 아주 넓고 이쁜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카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3. 엘리컷시티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카고 2, 밝고 이쁘게 잘꾸며
진집, 넓은 뒷뜰
▶ 410-417-7080

1. 패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5, 화장실 4+1, 카고 2, 넓은 구조와 잘가
꾸어진 집, 벽돌, 마루 바닥
2. 패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4, 화장실 3+1, 카고 2, 우수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패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4, 화장실 3+1, 카고 2, 엔드유닛, 아주 밝고
이쁘게 꾸며진 집
4. 비엔나싱글홈 \$1,875,000
방6, 화장실 6, 카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2.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 옆
▶ 517-239-6054

도미니언 벨리컨트리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5.5,
카고 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
실, 드레스룸, 인로우스위트, 미디어룸, 게임
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야외 리
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 517-239-6054

사업체 매매

DC 백안관영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
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 5일 Deli/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식당, 패어팩스 \$270,000
7,000sf/180석/연회전문/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30,000
리워라이센스/퓨전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 DJ Lee 703-303-8003

애난데일 버지니아 자동차 메캐닉샵
차고 2개, 서비스베이가 높습니다. 주차공간 충
분, 즉시 운영 가능, 퍼밋 완료, 1백 10만불
▶ 703-928-5990

1. 치킨 프랜차이즈 95만불, 주매상 3만
2. 일식집, GMU 근처 20만불, 주매상 1만 5천
▶ 703-303-8003

1.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3.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MD
4. 쿵후티, Bakery 등 리스팅
5. 나이트 클럽, 주매상 4만, 패어팩스 카운티,
최고로 케이션 5,000 sf

▶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샌드위치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 703-928-5990

멜리샵 (DC) \$150K
DC내 위치, 정사질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피아노 레슨 합니다.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강아지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솔레이션된
쿨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블랙, 애난데일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어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 컨디션 \$6,500
703-909-9377 / 703-560-6424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리
겠습니다.
703-869-5919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리 흔한,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헤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상태 좋은 남/여 중고 골프 세트 판매합니다.
703-966-9072 (Mr. Kim)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렌스
757-338-8496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울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
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애디션, 데크,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 571-213-8678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하세요
▶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d,Out), 데크 메인더너스와 클리
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
체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내년도 메디케
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
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 703-598-3316

옴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문 맞춤형 연금 & 재정 관리

▶ 703-895-7648

제인 최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 703-244-3453

마이클 장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 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 / 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자
▶ 202-774-6554

냉동 / 히팅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수리 전
문, 믿고 맡겨주세요.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데크 클리닝
▶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터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데크,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산업용
▶ 703-298-1919

▶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 / 냉난방 TEACHER
▶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웃장비수리, Ice Maker, 퀼러링,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 연중 무휴 무료점검
▶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 443-280-1873

정스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퀼러링,
워킹클러, 아이스마신, 데크설치&크리너
▶ 301-572-2786/403-953-0801

보석

▶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십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밸리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I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
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단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 703-600-9031

리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 / 타일, 주거용 / 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
지 책임집니다.
▶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데크 크리닝, 최상의 트럭 파워
팀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풀 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워크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 · 난방

“냉 · 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히팅 ·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설치

AWARDED

Porch Home Advisor BBB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신속한 A/S · 기술력과 서비스 · 경쟁력 있는 가격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 ·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데크, 캐비넷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법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법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기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법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33-2033 051-469-4191 310-767-5099 510-9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 귀국 이사 전문

신용 저렴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귀국이사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타주이사

100% 자체보험으로

해외이사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시내이사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성통신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wp., #310, Annandale, VA 22003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톡

소통

JD Star Pest Control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둘 보석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응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테아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핫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넥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성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SK 플러밍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 • 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둘째자,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룰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팎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새는 것

24Hr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씽크 / 디스포제
- ◆ 워터히터 / 물새는 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셀프펌프 교체

571.594.4080
VA A 라이센스 / 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역류장치(Backflow)
MD Fire 스프링클러
주방 화재 방지
용접(철, 스텐, 알미늄)
제작 및 설치
(기친후드, 닥트)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 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룰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Dad: You're going to love it up here.
아빠: 산에 올라가면 정말 좋아할 거다.

Son: You camped here before Dad?
아들: 아빠 전에 여기서 캠핑하셨어요?

Dad: Yes about four years ago. I love coming back here.
아빠: 그럼 한 4년 전에 왔지. 여기 다시 오니 좋다.

Son: Are we almost there?
아들: 거의 다 왔어요?

Dad: Oh no. We have a ways to go: about thirty more miles. 아빠: 아니야. 아직 멀었어. 30마일 정도 더 가야 돼.

Son: Did you say we're also going to ride horses?

아들: 승마도 할 거라고 하셨죠?

Dad: Yes. You can rent horses up here.

아빠: 그래. 여기선 말도 빌릴 수 있어.

Son: I can't wait to ride horses.

아들: 빨리 말 타보고 싶어요.

Dad: We'll set up camp today with our tent and sleeping bags and we'll ride horses tomorrow.

아빠: 오늘은 텐트하고 침낭을 정리하고 캠핑 준비를 하고 맘은 내일 탈 거야.

Son: All right! 아들: 좋아요~

기억할만한 표현

▶ come back: 돌아오다.

"What time are you going to come back?"

(몇 시에 돌아올 거야?)

▶ (one) can't wait to do (something): 손꼽아 기다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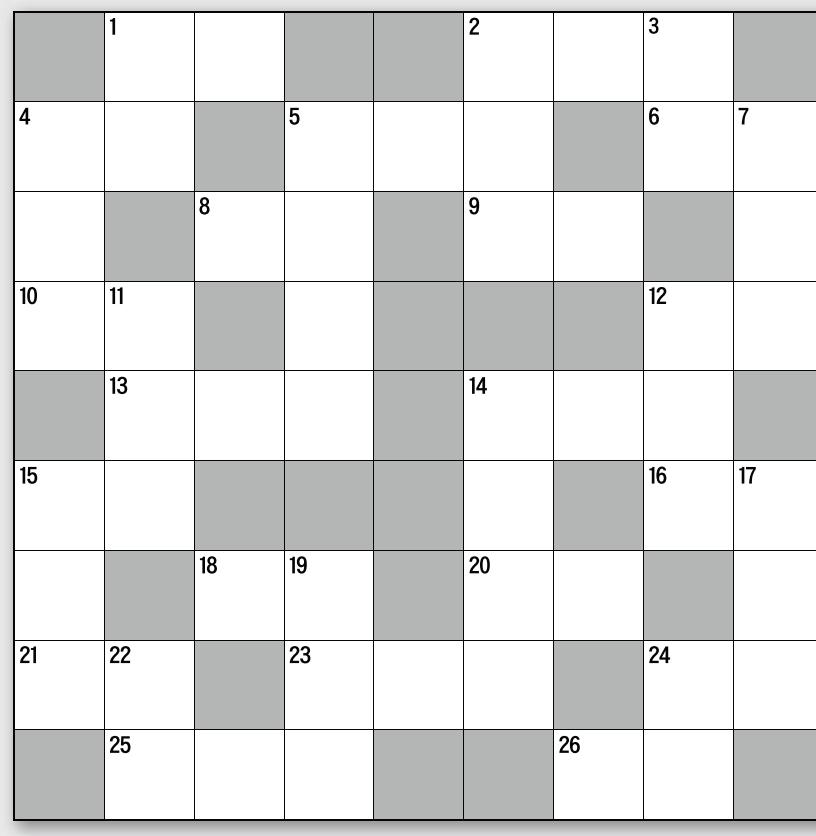
"She can't wait to graduate from college."

(그녀는 대학 졸업을 손꼽아 기다려요.)

▶ set up (something): (만남 등을) 주선하다.

"I'm going to set up a meeting with the owners of the two companies." (두 회사 소유주가 만나도록 제가 주선할 거예요.)

날짜퀴즈



가로열쇠

(1)한 어머니로부터 먼저 태어난 아이와 그다음에 태어난 아이와의 나이 차이 (2)쇠로 만든 낚기죽.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사람 (4)새끼를 드물게 떠서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든 그릇 (5)크기는 비둘기만 한데 사람의 말을 잘 흉내내어 애완용으로 사육된다 (6)바느질할 때 손가락에 끼우는 물건 (8)연기를 하는 사람 (9)물건을 담아 들거나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그릇. 누나는 꼴~를 메고 논 근처에 나가 풀을 뺐다 (10)몸의 열이 높을 때 입이나 코 안에서 나는 냄새 (12)다른 사람을 품에 껴안음 (13)외삼촌의 아내 (14)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치어 세우는 나무. 줄기가 약한 그 나무는 ~에 지자된 채 자랐다 (15)뒤를 보는 곳, 변소 (16)신령이나 부처가 사람에게 자식을 임태하게 하여 줌 (18)개울 상류의 돌 밑에 살며, 뒷걸음질을 잘한다 (20)꽃이 핌 (21)여든여덟 살 (23)제 병이에 딸린 무리를 알잖아 이르는 말. 평생 돈 한푼 안 벌어 보고도 땅평거리며 잘사는 ~가 몇 있다 (24)큰길로 이어져 있는 작은 길 (25)변변치 않은 반찬 (26)실내용 이동식 변기

세로열쇠

(1)사람이나 길짐승의 몸에 난 길고 굵은 털 (2)가시철사를 그물처럼 열기설기 엮어 친 울타리 (3)살가죽과 뼈. ~이 상접하고 머리털이 빠진 그는, 걸친 옷이 너무 커서 마치 허깨비가 달려오는 것 같다 (4)곱셈에 쓰는 기초 공식 (5)아홉 마리 소 가운데 한 개의 털. 아주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부분 (7)근심이나 걱정이 없이 지내는 늙은이. □수□ (11)부부 사이. ~에 금실이 좋다 (12)베나 무명 따위의 천을 파는 가게 (14)버드나무의 꽃. 넛가의 ~와 먼 산의 푸릇푸릇한 빛은 봄기운을 느끼게 한다 (15)목의 뒷부분과 어깻죽지 사이의 부분. 선생님은 복도에서 뛰어다니던 학생의 ~를 잡았다 (17)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려 통하는 길.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실업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19)담배의 재는 이 그릇에 떨어야 하지요 (22)얼굴이나 몸을 닦기 위하여 만든 천조각 (24)큰 강의 본류에서 물줄기가 갈라져 나가서 가운데에 섬을 이루고 하류에서 다시 본류에 합쳐지는 지류. 여름이 되면 ~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았다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Eng)	한글(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iberty worldpay

www.meridianwish.com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Worldpay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 & Liberty Bankcard**

**WORLDPAY와 함께한
30년의 신뢰**

- 전 세계 175개국, 2M 가맹점 서비스
- 연간 550억 건 이상 거래 처리

**Worldpay는
현재 글로벌 1위 회사**

미전의
에이전트 구함**3대 핵심 서비스 제공**

- 업계 최저·투명한 수수료
- 최신형 POS 단말기 무료 제공
- 최고 수준의 기술, 고객 서비스

**지금 전화하세요!
(424) 332-3779**

www.meridianwish.com Info@meridianwish.com
Powered by Worldpay 9465 Wilshire Blvd., Suite 300 Beverly Hills, CA 90212
Liberty Bankcard (MPS) is a registered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 of Worldpay ISO and Ecommerce, LLC, a registered ISO of Fifth Third Bank, N.A., Cincinnati, OH, USA

기타 지역

구인

중식쉐프 & 스시맨

일리스카·취업결과유없는분
숙식제공(858)337-0982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자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질라리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구인

렌트
부동산미국
라이프의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미국의 한인 산삼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홀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Kim's Acupuncture Cli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풀림·변비·요실금 출혈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기편합니다.

똥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미라클 터치 (213)675-6877

20년된 한식점 일식당 급매**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현대자동차 등 협력회사 많은 지역으로 트래픽이 많은 지역입니다.

몽골베리 알라바마지역 가 \$10만 (Nego 가능)

(334) 669-4474**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후노 고메즈 씨.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후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COLDWELL BANKER EVISION baksusa@yahoo.com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빼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나
실제 치료
사례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육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십시오!**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어르신을 위한 연말연시 최적의 선물!!
건대추 판매 11월부터

**좋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 하세요!**

전화주문 714.833.4988 (Mrs. Han You)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8.00
\$1.00
SOLD
1BOX

묵은해 대추 : NO
쪄서 말린 대추 : NO
감미료 첨가 : NO
화학비료 사용 : NO
농약 사용 : NO
중국산 대추 : NO

숙성된 토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입니다.

\$150 /10LBS·1BOX
\$12/lb 대추

\$100 /10LBS·1BOX
\$7/lb 대추* \$12/lb 대추는 \$15/lb 대추보다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Pay by Zelle or check. No credit card. 하와이 알라스카 추가요금

농장방문시 전화예약 필수

신선농원 714.833.4988 (Mrs. Han You)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풀무원 김치 냉장고 런칭 기념 세일!

내 공간에 딱 맞는 김치냉장고
바쁜먹거리를 담는 바쁜 솔루션

풀무원 김치냉장고 120L

PULMUONE KIMCHI FRIDGE 120L

\$1,399

~~\$999~~

STEAMBOY

스팀보이 카본 온수매트

SPECIAL OFFER

싱글
\$340 → \$300

STEAMBOY

흙표 흙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 한 흙표 흙매트는
전면은 죄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퀸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흙표흙매트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CORE Integrative Care & Wellness

센터빌
챈들리
현돈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Kenzie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보스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 여행자 보험

교통사고

- 메디케이드
- 캐쉬플랜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 멀티매장 + 창고관리
- 간편한 재고관리
- 고객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 모바일 앱을 통해 손님폰으로 세일 전송
- 기존 POS 시스템에서 재고 데이터 이전 가능
-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는 오프라인 모드
- 100,000개 이상의 뷰티 아이템 데이터 내장
- 매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가능

“모바일 앱 세일 광고 품목,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구매, 결제 가능”

“세일즈 에이전트 모집중!!
문의: hr@worldbankcard.net”



WBS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